



개념 · 사례 · 통계를 활용한

# 경제학습

개념 · 사례 · 통계를 활용한 **경제학습**  
**고등학교 경제 편**

발행일 : 2011. 3.

저 자 :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 : 현오석

발행처 : KDI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 화 : 대표전화 02-958-4114

도서주문 02-958-4243

홈페이지 <http://click.kdi.re.kr/>

ISBN 978-89-8063-524-5 93320

ISBN 978-89-8063-525-2 (전3권)

©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이 책의 내용, 사진, 그림 등의 전부나 일부의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제를 일절 금합니다.



개념 · 사례 · 통계를 활용한

# 경제학습

고등학교 경제 편



# 서문

시중에 많은 경제학 원론들이 출간되어 있지만 대부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론서보다는 쉬우면서도 교과서 설명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와 통계가 소개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KDI 경제정보센터는 학교급별 수준과 교과서 목차에 맞추어 『개념·사례·통계를 활용한 경제학습 : 중학교 사회 편』, 『개념·사례·통계를 활용한 경제학습 : 고등학교 사회 편』, 『개념·사례·통계를 활용한 경제학습 : 고등학교 경제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제학습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중 경제관련 단원에 포함된 16개의 핵심개념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경제관련 단원의 10개 핵심개념, ‘고등학교 경제’에서 다루지는 52개의 핵심개념을 추출해 소개하고 있으며, 각 개념마다 풍부한 읽기자료 및 통계자료를 넣어 교실에서 직접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 편’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새로이 만들어진 교과서 체계와 내용을 반영했고, ‘고등학교 경제’ 편에는 최근 3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수능 모의평가의 선택경제 기출문제를 수록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책의 분량 등의 문제로 정답만 수록했지만 추후 금년 6월까지 자세한 해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월간 클릭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click.kdi.re.kr>) ‘교과서 공부방’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기존의 중학교 사회3,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경제에 소개된 ‘학습개념’을 재가공하여 단행본으로 펴낸 것입니다. 처음 자료가 만들어질 2009년에 중학교 사회3의 경우 정양례(경기 하안중학교), 이은주(서울 양서중학교) 선생님과 함께 작업했으며, 고등학교 사회는 최종찬(서울 노원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경제는 유지후(대전 대성고등학교), 장영주(일산 동고등학교), 홍윤희(인천 송덕여자고등학교), 박세현(부산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정재만(인천 강화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완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덟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제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기획에서 발간까지 힘써준 김진영 경제교육실장과 학교경제교육팀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1년 3월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문형표

## I.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 1. 경제 생활의 의미 2
  - 개념01 경제활동 2
  - 개념02 경제와 다른 생활 7
  
- 2.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 11
  - 개념03 희소성 11
  - 개념04 기회비용 16
  - 개념05 생산가능곡선 25
  - 개념06 합리적 선택 30
  
- 3.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38
  - 개념07 경제체제 38
  - 개념08 남북한 경제 48

## II. 시장과 경제활동

- 1. 시장 가격의 기능 52
  - 개념09 시장 52
  - 개념10 가격 60
  
-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66
  - 개념11 수요와 수요 법칙 66
  - 개념12 수요와 수요량 70
  - 개념13 공급과 공급량 80
  - 개념14 균형가격의 결정 86
  - 개념15 가격규제 97
  - 개념16 탄력성 106
  
- 3.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117
  - 개념17 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117
  - 개념18 외부성과 시장실패 124
  - 개념19 공공재와 시장실패 132

### Ⅲ. 바람직한 소비 선택

1. 바람직한 소비 선택 140
  - 개념20 가계의 소득 140
  - 개념21 소비와 저축 146
  - 개념22 합리적 소비 152
2.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윤리 160
  - 개념23 기업의 목적과 유형 160
3. 책임있는 재정 운영 167
  - 개념24 정부의 경제 활동 167
  - 개념25 재정과 예산 173
  - 개념26 조세의 종류 179

### Ⅳ.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1. 국민경제의 효율 186
  - 개념27 국내총생산(GDP) 186
  - 개념28 GDP 계산과 3면등가의 법칙 194
  - 개념29 총수요와 총공급 200
  - 개념30 경제 성장 207
  - 개념31 소득분배정책 214
2.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225
  - 개념32 물가와 물가지수 225
  - 개념33 인플레이션 232
  - 개념34 실업 240
  - 개념35 실업의 종류와 대책 250
  - 개념36 경기 순환 260
  - 개념37 경제성장의 요인 266
  - 개념38 재정정책 272
  - 개념39 통화정책 279



## V.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 1. 국제거래와 경쟁력 288
  - 개념40 국제거래 288
  - 개념41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292
  - 개념42 국제경쟁력 302
  - 개념43 환율 306
  - 개념44 환율 변동 315
  - 개념45 외환시장 324
  - 개념46 국제수지표 331
  - 개념47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334
  - 개념48 세계화 342
  
- 2.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348
  - 개념49 한국경제의 미래 과제 348
  
-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355
  - 개념50 지역경제 블럭화 355
  - 개념51 FTA와 WTO 361
  - 개념5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70



# I

##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1. 경제 생활의 의미
2.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
3.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 1 경제 생활의 의미

## 개념 01

## 경제활동

**키워드** 경제활동 · 주체 · 객체 · 가계 · 기업 · 정부 · 해외 · 생산 · 분배 · 소비 · 경제체제

### 개념 설명

####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하고, 몸이 아플 때는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때문에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거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활동의 객체다. 현대경제에서의 경제주체는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해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풀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바다 속 물고기가 식탁위에 오르기 위해서, 누에고치가 실이 되고 옷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등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노력이 더해지면서 필요한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 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소비는 필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이다. 소비는 생산의 밑바탕이 되며, 생산은 분배로 이어지고, 분배는 소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산·분배·소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



## DP(Dangerous Point) |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의 생산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 계산에서 측정되는 생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활동에서 생산이란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일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도 가사서비스를 만드는 생산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DP 측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하고 있다. GDP 측정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GDP 측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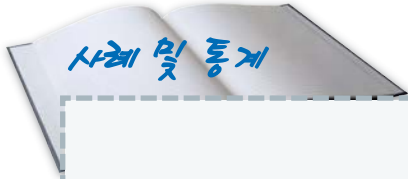
### 3가지 경제문제

생산활동은 경제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생산에 앞서 생산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3가지 경제문제인 무엇을 얼마나(생산의 종류와 양), 어떻게(생산의 방식), 누구를 위하여(분배)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러한 3가지 문제의 해결 방식은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경제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듯이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해결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가령, 열차를 운행할 때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통경제체제였으며,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하였고, 뒤이어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개념 7] 참조).



### 경제문제는 세 가지 뿐인가?

경제이론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한 공로로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사회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상호존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현하였다.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What & How much to produce), ②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How to produce), ③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라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중략)…최근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주목한다. 그것은 ④ 언제 생산할 것인가(When to produce)이다. 이 문제는 석유·석탄·기타 광물과 같이 한번 써 버리면 재생할 수 없는 자원(exhaustible resources)의 시간적인 배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하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대가 많이 쓸수록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지게 된다. 지하자원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존량이 한정된 자원을 세대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출처 : 김대식 외 2인, 『현대경제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07

###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문제

감격적인 장면은 최근 60년 만에 만나 꿈에 그리던 육친의 얼굴을 보듬은 이산가족 상봉일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린 상봉 행사를 모두 마치고 눈물로 얼룩진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시 만날 기약을 했겠지만 생전에 다시 만날 보장은 없다. 2010년 11월 3일부터 시작된 2차 상봉에 참가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5일 오전 9시 금강산 호텔에서 1시간 동안 열린 작별 상봉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석별의 정을 담담하게 나누던 가족들이 “작별상봉 종료가 10분 남았습니다”란 안내 방송에 슬렁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간간히 들리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가족들은 서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10분 후에 “작별 상봉이 종료되었다”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상봉장은 부동켜안고 울부짖는 사람, 뒤늦게 큰 절을 올리는 사람들로 어지럽게 뒤엉켰다고도 한다. 이틀간의 상봉에서 북측 행사요원들의 눈치를 보며 언행을 극도로 자제했던 북측 가족들은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언제보아도 감동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장면이다. 우리만이 가진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몽클한 장면이다.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이 경제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민족의 아픔과 고뇌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꾸짖는다 해도 할 말은 없다. 그럼에도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 무리를 감행하려 한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은 재화가 아닌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번의 상봉은 서로가 헤어지고 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재화는 일정한 형태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면 형태가 변하거나 없어진다. 그러나 서비스는 형태나 모양도 없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서비스는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독특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만나고자 요구하여도 북측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모두 장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10년 후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다. 이산가족들이 남과 북 모두 오래 살아야만 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조건이 또 하나 추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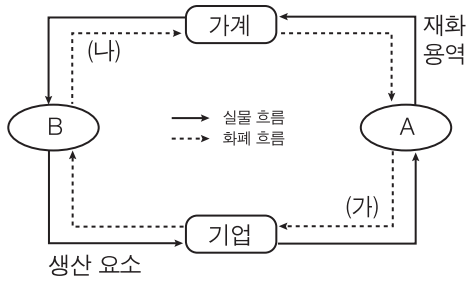
어느 사회건 경제문제에 직면한다고 한다. 흔히 경제문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말한다. 희소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세계적인 공통의 과제 때문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해졌다.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이 결국은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우리 인류의 경제 분석의 범위와 시간의 외연적 확장을 가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 매진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공을 위해 꿈을 꾸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열심히 공부라는 것을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실력테스트

1 그림의 경제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① 지대는 A에서 결정된다.
- ② 기업은 B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③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은 (가)의 증가를 가져온다.
- ④ 임금이 인상되면 (나)의 크기는 증가할 것이다.
- ⑤ 이전 소득이 감소하면 (나)의 크기가 감소할 것이다.

[정답] 1. ④

## 개념 02

## 경제와 다른 생활

**키워드** 경제 · 정치 · 법 · 문화 · 환경

## 개념 설명

### 🌸 경제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경제 · 법 등을 나누어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치 · 경제 · 법 · 문화 · 예술 · 철학 기타 등등 모든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경제도 우리 생활 속 다른 모든 삶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 🌸 정치와 경제

정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사회체제다. 따라서 경제 영역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회가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제체제도 함께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경제 · 사회적 변화가 극심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나 사회의 여타 영역이 확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이기도 하다.

### 🌸 법과 경제

법은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한다. 법에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법은 경제논리에 의해 소외되기 쉬운 약자(노동자 · 여성 · 노인 · 어린이 · 장애인 등)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문화와 경제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수준을 벗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 영역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한류문화 확산으로 공연수익 · 기념품 · 음반판매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교민들을 포함한 한국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

## 환경과 경제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공업화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 문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가 결국 모든 경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사례 및 통계

#### 한 · 일 경제관계 업그레이드로 이어져야

50년 이상 제1당으로서 일본 정계에 군림해 왔던 자민당이 패배하고 새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은 앞으로 한 · 일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민주당은 서민 중시, 관료주의 타파, 아시아 경제와 관계 중시 등 여러 가지 주목되는 혁신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소비자와 서민 중시 정책을 강화하면 일본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한 · 일 산업 간 분업 관계가 고도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일 역조 문제도 개선되도록 한 · 일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시아 역내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 · 일 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도 있다. ...중략... 일본 소비시장 개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세계 각국에서 히트상품이 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일본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에는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 선호라는 폐쇄적인 성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 · 일 경제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도 고려해야 할



과제가 되겠지만, 일본 소비자의 이러한 폐쇄성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물론 어떤 국가도 일본과 선뜻 FTA를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일본 정부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류와 같이 양국 국민 사이에 오해와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류를 양국이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 『매일경제신문』, 2009년 9월 1일

## 中 차기 지도자 ‘시진핑’ 낙점...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한 가운데 지난 18일 폐막됐다. 시 부주석은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대권을 잡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사실상 낙점됐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은 제 5세대 집권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 부주석은 2012년 10월 당 서열 1위자리를 물려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5중전회의 화두가 개혁과 변화였고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한 만큼 ‘앞으로 새로운 30년이 시작될 것’(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적 행보가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선 당장 내년부터 5년간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될 12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됐다. 분야별 구체적 실행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사회의 변화는 이번 5중전회를 끝으로 본격화될 5세대 지도부 인선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시 부주석이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게 되면 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은퇴하게 된다.

사회 불안 해소도 큰 과제다. 중국 내부에선 빈부 격차의 확대로 최근 집단시위가 빈발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은 중국에는 새로운 실험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변화’라고 보도했다.

또 ‘국부(國富)에서 민부(民富)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 보장, 그리고 전면적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성장 위주에서 분배와 내수 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겨왔고 이번 5중전회는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 주석이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언급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핵

심 개념으로 이는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 및 지역 격차, 그로 인한 계층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국부(國富)보다는 민부(民富)를 더 중시하고 경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취지다. 당장 중국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10%보다 다소 낮은 7% 선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5년간 4조 위안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000달러 시대를 앞두고 빈부 격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손꼽힌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734달러(국제통화기금 발표 기준)로 올해 4,0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칭화대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중국의 경우 0.47에 달한다. 통상 0.4가 넘으면 위험, 0.5를 초과하면 폭동 발생 수준으로 분류된다. 인구의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41.4%를 차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3.3배에 달한다. 최저수입층 10%와 최고수입층 10% 간의 소득 격차는 55배다. 2007년엔 21배였으나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이 벌어졌다. 리나천 홍콩 현대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사회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중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빈부 격차에 따른 집단시위가 빈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사회의 안정성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10년 10월 25일 기사 일부 수정

## 2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



### 개념 03

### 희소성

**키워드** 희소성 · 경제문제 · 선택 · 자유재 · 경제재



### 개념 설명

#### 희소성과 경제문제

“드물 희(稀), 적을 소(少), 특성 성(性)”

희소성이란 드물고 적은 특성으로, ‘부족함’을 뜻한다. 사람들은 누구도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열심히 돈을 모아 부자가 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해 할 것이다.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희소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무엇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동시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경제문제란 ‘희소한 자원 중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와 같은 ‘선택의 문제’를 말한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희소하지 않다. 예쁜 옷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옷 10벌이 있어도 옷이 희소할 수 있는 반면, 로봇 장난감이 전혀 없더라도 로봇 장난감은 희소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막에서 목마른 자에게 주는 한 모금의 물은 집에서 마시는 정수기의 물보다 더 희소하다. 이처럼 희소성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성이 있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량이 많아도 희소성이 높을 수 있고, 절대적 존재량이 적어도 희소성은 낮을 수 있다.

## 자유재와 경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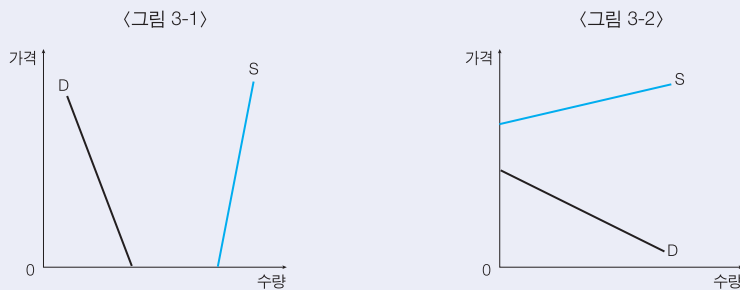
부존량이 풍부하지 않은 재화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희소성이 없는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써 주신 친필 사인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고 희소성이 높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할아버지 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희소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반면에 부존량이 많아도 사람들의 욕구가 있고, 다른 사람과 재화를 두고 다투야 하는 상황이라면 희소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재화의 경우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있다. 이를 **자유재**라고 한다. 공기는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사용해도 늘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공기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다. 이와 달리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존재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 한다. 경제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로 볼 수 있다.

자유재와 경제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 강산이라 하여 어디서나 맑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맑은 물이 자유재였던 셈이다. 반면 요즘은 환경오염으로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생수를 구매하고 있다. 자유재가 경제재로 변신한 것이다.

### DP(Dangerous Point)

자유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자유재의 그래프일까?



〈그림 3-1〉은 공급이 많지만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그림 3-2〉는 공급이 매우 적어 공급 곡선이 왼쪽에 치우쳐 그려진 것이다. 따라서 〈그림 3-1〉은 공급이 매우 많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림이며 〈그림 3-2〉는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림이다.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유재는 〈그림 3-1〉에 해당한다. 우주여행과 같은 재화는 공급이 매우 적고 수요도 매우 적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그림 3-2〉에 해당한다. 2011년 2월 외신은 “미국 보스턴의 항공자동차 전문업체인 ‘테라푸기어’가 이르면 2011년 말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화제를 모은 항공 자동차 ‘트랜지션’의 양산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가격이 고급 승용차 1대 가격 수준인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서 책정했다고 하니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그림 3-2〉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모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지만, 그 이유는 매우 상이하다. 여기서 다시 기억할 것은, 희소성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란 것이다.

### 초등학생 엄마의 ‘자원봉사 고민’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직장에 다니는 엄마(직장맘)’와 ‘전업 주부 엄마(전업맘)’ 사이의 미묘한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자원봉사로부터 시작된 갈등이다. 보통 초등학교 한 반 학생 35명의 학부모 가운데 15명 정도는 각종 자발적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형식만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다. 직장맘은 사정상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업맘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엄마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자원봉사가 더 이상 ‘공짜점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애쓰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를 생각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하는 행동’을 떠올린다. 그러나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인간의 행동이 없듯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에서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free goods)라고 한다. 공기나 물이 대표적인 예다. 자유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재화들이다. 그러나 자유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재는 희소성을 가진 경제재로 바뀌고 시장에서 거래된다. 198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1%였다.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전업주부가 많아 주부의 학교 자원봉사가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2006년에는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일하는 엄마의 증가는 학교 자원봉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자원봉사의 공급을 감소시켰다. 한편 2004년 4월 초등학교 급식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수요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부의 자원봉사는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가 되었다.

자원봉사가 자유재가 아닌 희소성을 가진 경제재라면 주부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장이 생겨나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자는 자원봉사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대변하듯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라는 신종 직업이 생겨났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고학년이 저학년 배식을 도와주거나 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노력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짜점심’은 아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7년 5월호

## 모래는 오늘날에도 자유재일까?

미국 블룸버그 에너지는 모래를 활용한 차세대 연료전지 ‘블룸박스’를 개발해 4억달러의 벤처 자금을 유치했다. 모래에서 추출한 세라믹으로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전해질을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가 최첨단 정보기술(IT)의 주원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콘크리트 골재로 흔히 사용되는 모래도 가공하기에 따라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소재가 된다.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래 수입액은 연평균 5,000만달러 수준에 이른다. 모래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른다.

모래 그 자체를 쓰면 값어치가 낮지만 화학처리나 가공과정을 거치면 몸값은 천정부지다. 액정 화면(LCD) 유리기판의 핵심소재도 모래다. 업계 관계자는 “LCD 유리기판을 쓰는 데 적합한 모래의 안정적인 확보가 제품 생산의 최대 관건”이라며 “반도체가 산업의 꽃이라면 모래는 유리산업의 꽃”이라고 말했다. 모래를 활용한 차세대 첨단세라믹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반도체 부품의 70%, 자동차 전자부품의 80%, 연료전지의 90%가 각각 세라믹을 사용한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도 모래가 주 원자재다. 순도 높은 규소봉을 얇게 잘라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것이 웨이퍼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 방지용으로 쓰이는 실리콘 고무도 모래로 만든다. 한때 KCC가 ‘차돌에서 실리콘(웨이퍼)을 만든다’는 광고를 한 것도 차돌을 깨끗하게 부수기만 하면 모래와 마찬가지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질 좋은 국내산 모래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바닷가 모래는 채취가 끝났거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채취 작업이 쉽지 않아서다. 과거 안면도나 주문진 앞바다 모래가 많이 쓰였지만 요즘은 경기 가평 광산을 비롯한 산에서 나오는 규암을 잘게 부순 것으로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있다. 제철소에서 주로 쓰는 화재방지용 벽돌은 국산 모래로는 만들 수 없어 외국에서 수입한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1년 1월호



### 토론 주제

- 위 글에서 모래가 자유재일까?
- 어떤 요인이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다른 사례 찾아보기.



실력테스트

1 다음 (가)~(다)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가) 물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로 다이아몬드보다 유용성이 더 크다. 하지만 물의 가격은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훨씬 더 낮다.
- (나)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망고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바나나가 망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 (다) 무명 화가의 습작들은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화가가 훗날 명성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무명 시절에 그린 습작이라도 비싼 돈을 주고서 구입한다.

- ① (가)에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물보다 희소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② (나)에서 바나나는 망고보다 희소성이 더 큰 재화이다.
- ③ (다)는 희소성에 따라 자유재가 경제재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 ④ (나)와 (다)는 가격이 희소성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 ⑤ (가)~(다)에서 희소성은 재화의 존재량과 욕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2 밑줄 친 (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재화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없는 재화들도 기술에 따라 (나)적절한 가격 수준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바뀌게 될 수 있다.

<보 기>

- ㄱ. 이 재화의 시장 거래량은 0이다.
- ㄴ. 초과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재화이다.
- ㄷ. 이 재화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0이다.
- ㄹ. 가격 구조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지는 재화이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A국의 '깨끗한 물'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그림과 같이 A국은 ①50년 전만 하더라도 곳곳에 맑은 강과 호수가 있어 돈을 지불하고 깨끗한 물은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②환경 오염이 발생하여 ③30년 전부터 깨끗한 물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다. 이에 A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④강력한 환경 개선 정책을 실시한 결과 수질이 50년 전 수준으로 되살아났다.

<보 기>

- ㄱ. ① 시기 깨끗한 물은 자유재에 해당한다.
- ㄴ. ②은 산업화에 따른 외부 경제 현상이다.
- ㄷ. ③ 시기 깨끗한 물은 공급 감소로 인해 경제재가 되었다.
- ㄹ. ④로 인해 깨끗한 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④ 2. ② 3. ②

## 개념 04

## 기회비용

**키워드** 합리적 선택 · 기회비용 · 회계적 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 묵시적 비용 · 매몰비용

### 개념 설명

####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민

합리적 선택이란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만 크다고 합리적 선택은 아니다. 누구나 항상 부족한 자원(시간, 돈 등)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은 주어진 조건 또는 자원에서 속에서 비용은 가능한 적게 치르고 만족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대안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면 선택으로 연계 되는 실질적인 만족이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국가나 기업도 비용 · 편익 분석을 하게 된다.

####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비용이 과소평가 된다면 비용대비 편익이 크게 나타나고, 비용이 과대평가 된다면 좋은 대안이 높은 비용으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영화 감상, 공연 관람, 공부 중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각 대안이 주는 만족은 영화 감상 10만 원, 공연 관람 15만 원, 공부 5만 원이지만, 영화나 공연 관람권은 모두 공짜로 얻은 초대권이다.

이때 초대권으로 공연을 관람하면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5만 원의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이때도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차선인 영화 10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공연을 관람하기로 한 경우 남은 대안은 영화와 공부이고 두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차선인 영화 10만 원이 공연 관람의 기회비용이 된다.

상황을 바꿔 공연 관람권이 1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공연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즉 기



회비용은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을 더 추가한 11만 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연표 구매에 지출한 1만 원은 1만 원의 가치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기회비용은 공연표 구매에 지출한 1만 원과 영화의 가치 10만 원으로 구성된다. 공연표 구매와 같이 회계장부에 실제로 기록되는 비용을 **회계적 비용** 또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 반면 영화의 가치와 같이 장부에 기록되는 않지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비용을 **암묵적 비용** 또는 **묵시적 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패션 모델로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H씨가 있다. H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1년 동안 쇼핑몰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원이고, 1억3천만 원의 운영 수입이 예상된다. 즉 연 3천만 원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다. H가 모델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명시적 비용 = 쇼핑몰 투입비용 1억 원

암묵적 비용 = 모델 활동했을 경우 수입 3천6백만 원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 1억3천6백만 원

기회비용이 위와 같이 계산된다면 쇼핑몰 수입 1억3천만 원으로는 모델을 그만뒀선 안된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오히려 6백만 원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수입이 1억3천6백만 원은 넘어서야 모델을 그만둘 것이다.

단, 위와 같은 계산이 가능하려면 투입된 1억 원은 1년 내에 모두 소진(1억 모두 매몰비용)되고,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면 포기한 이자 수입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매몰비용

기회비용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신중한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도 있다. 바로 매몰비용이 그렇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흔히 본전 생각으로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에 연연하여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매몰비용에 집착한 비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가 너무 지루하고 시시한데, 영화비가 아까워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관람료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이제는 영화비를 고려하지 말고 지금 영화를 계속 볼지 말지를 선택하는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 DP(Dangerous Point) | 명시적 비용도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포기한 대안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이 기회비용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반면 눈에 보이는 직접 투입된 비용인 명시적 비용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투입된 명시적 비용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비용만큼의 가치를 포기한 것으로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이성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2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다. 이때 “이 선택에 투입되는 기회비용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기회비용을 배운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답이 달라진다. 기회비용을 배우지 못한 A는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지출명세표를 내보이며 13,800원이 든다고 말할 것이다. (<지출 명세표>참조)

〈지출명세표〉	
티켓 두장 : 9,000×2장 =	18,000원
포인트 차감 :	- 6,000원
대중교통 요금(왕복) :	1,800원
<b>총비용</b>	<b>13,800원</b>

이때 옆에서 기회비용을 배운 B가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차선의 가치’라며 영화관람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 갔으니 포기한 아르바이트 2시간(시간당 5,000원)의 임금인 10,000원이 기회비용이라고 답했다. 누가 맞는 걸까? 두 사람 모두 틀렸다. A는 기회비용을 배우지 못해서 틀린 것이고, B는 기회비용을 잘못 배워서 틀린 것이다. 기회비용을 처음 배울 때 ‘포기한 차선의 가치’라고 배운다. 따라서 B가 계산한 것과 같이 포기한 차선의 가치인 아르바이트 임금 10,000원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출된 비용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비용이라고 하며, 이는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가끔 암묵적 비용만을 기회비용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이뿐일까? 이점이 바로 dangerous point다.

영화를 보기 위해 지갑에서 지출된 13,800원도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13,800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지만, 영화를 선택하면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계장부에 직접 지출로 표시된, 지갑에서 바로 빠져나간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며, 이것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영화 선택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인 13,800원에 암묵적 비용인 10,000원을 모두 더한 23,800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다. 왜 그럴까?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6,000원의 포인트 점수때문이다. 해당 포인트 점수를 영화를 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쇼핑이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인트 차감액인 6,000원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영화를 보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29,8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한 가정의 평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가사 노동의 부담이 가정 내 큰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 모두 밖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도착할 터이니 서로 집안일을 상대방이 더 많이 맡아 주기를 바라게 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아이 양육 문제까지 겹쳐지면 가사 노동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나므로 갈등도 더욱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

A씨 부부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가사 노동도 문제였지만, 어린 아이를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여기 저기 보육시설에 맡기다 보니 아이도, 부모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였다. 힘이 들다보니 부부간에 말다툼도 잦아지고, 부인도 아이도 몸이 약해 자주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고민 끝에 A씨 부부는 출근해 있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하기로 하였다. 아주머니는 음식 마련, 청소, 빨래, 집안 정리 및 아이까지 맡아 주기로 하고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까도 고민했지만, A씨 부부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다. 아내도 직장인으로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일을 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낮 동안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다 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저녁 식사까지 차려 놓으시고 A씨 부부는 퇴근하여 차려진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은 준비된 식사를 꺼내어 먹고 그냥 두고 출근하면 아주머니가 나머지 뒷정리를 맡아 주셨다. A씨 부부는 더 이상 가사 부담을 두고 다투지도 않았고, 엄마도 아이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해졌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졌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의 월급이 160만 원인데,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150만 원을 드리고 나면 일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더욱이 출퇴근 비용이 20만 원 소요되니 오히려 손해란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A씨 부부의 경우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은 2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이다.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벌 수 있는 월급 160만 원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160만 원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여기에 아내가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아실현의 가치까지 따진다면 설불리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승진하면서 급여가 올라갈 것까지 고려해보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의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도 170만 원만이

아니다. 자신의 아이를 돌보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 선택의 본질, 기회비용!

자원이 희소한 만큼 사람들은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욕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족시켜야 할 욕망을 골라내야 한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용도를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욕망은 단념할 수밖에 없다. 적은 용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을지 영화를 보러 갈지를 결정해야 하고, 알뜰한 월급봉투로 냉장고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경제행위는 결국 희소한 자원의 용도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한정된 소득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금 2만 원으로는 (1) 5천원짜리 CD를 넷 살 수도 있고 (2) 1만 원짜리 케익을 두 개 살 수도 있다. 또는 (3) 1만 원짜리 케익 한 개와 5천원짜리 CD 두 장을 살 수도 있고, (4) 그냥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금 2만 원으로는 이러한 행동 가운데 오직 어느 한 가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1)과 (4)를 둘 다 하려면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5천원짜리 CD 넷을 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가진 현금이 2만 원뿐이므로 (1)이나 (4)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할 뿐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한정된 현금 2만 원으로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행동 (1), (2), (3), 그리고 (4)를 일러서 네 개의 대안이라고 한다. 물론 대안으로는 몇 가지가 더 있다. 가령 5천원짜리 CD를 한 장 사고 1만5천원은 현금으로 가지기로 하는 행동도 또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사람들은 가능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한다. 일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나면 다른 대안을 즐길 기회는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한 기회는 선택에 수반하는 비용이다. 특히 선택되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아쉬운 대안의 가치를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케익 한 개와 CD 두 장을 구입하는 대안 (3)을 선택한 어떤 사람이 케익 두 개를 구입할 수 있었던 기회 (2)를 가장 아쉬워한다면 선택 (3)의 기회비용은 케익 두 개이다.

대안 (2)를 버리고 (3)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대안 (2)에서 케익 한 개를 포기하는 대신 CD 두 장을 더 얻는 셈이다. 한정된 돈 2만 원으로는 CD 두 장을 더 얻기 위하여 반드시 케익 한 개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어떤 것을 더 얻는 대가로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선택의 본질이다. 무엇을 더 얻는 대신 다른 무엇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본질을 트레이드오프(trade-off)라고 한다. CD 두 장을 더 얻기 위하여 케익 한 개를 트레이드오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케익 한 개는 CD 두 장의 기회비용이 된다.

국가경제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에 자원을 투입하면 사회복지

지에 투입할 자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가 자원이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는 일정한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는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4월호

## 기회비용과 사회적 선택

‘경제하면 떠오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돈 버는 것!’ 또는 ‘아끼는 것!’이라는 대답이 곧잘 돌아온다. 일반사람들에게 물어도 답은 비슷하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돈도 잘 벌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듯하다. 알뜰하게 모으고 아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아마도 경제 교육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람이 경제 공부에 열심히 나서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경제 지식의 많고 적음이 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를 잘 모를 경우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지나친 해석일까?

그렇다면 경제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맨큐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희소성(scarcity)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모든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한 사회도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을 누구에게나 보장해줄 수는 없다. 경제학이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희소성에서 출발한 경제문제는 항상 선택을 낳는다.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취할 수는 없음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인 돈, 시간, 능력 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되 자신 또는 사회를 위해 가장 큰 보탬이 되거나 만족이 큰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택 받지 못한 대안을 남겨 둔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의 선택이란 끊임없는 욕망과 현실제약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경제를 처음 접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익숙하지 못한 단어가 기회비용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회비용은 선택받지 못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대안을 말한다. 이 개념은 결국 하나의 선택으로 잃게 될, 포기할 아쉬운 기회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여러 대안 가운데 최종적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체적으로 선택으로 발생할 이득과 비용을 따져볼 것이다. 비용과 이득을 따져 어느 선택이 더 큰 순편익을 가져다줄 것이지

를 비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비용’을 고려할 때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만을 고려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때의 비용은 앞에서 말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관련 서적은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어공주와 목소리, 벵이와 개미, 효녀 심청이, 세 왕자 이야기(망원경, 양탄자, 약병)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의 선택, 대학을 마치지 않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가 자주 거론된다. 여기서는 기회비용의 사례를 앞에 든 많은 개인적 선택보다는 사회적 선택에 초점을 맞춰 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와 여러 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들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논한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비즈니스맵)에 따르면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치르는데 1천억 달러나 2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추정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을 치르는 데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견주는 비용-편익 분석은 유용한 도구다. 위의 책에서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국가 재정이 발생하는 비용만을 전쟁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쟁을 둘러싼 전체 비용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전쟁으로 얻는 이득을 재정수지의 변동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는 비용도 재정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로 집약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쟁에 따른 사망과 상해의 문제,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동원하는 문제, 동원 병력의 복무 기간도 늘려야 하는 문제 등이다. 전쟁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인의 신분이었다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귀국하는 참전병사들의 엄청난 숫자에 주목한다. 뇌손상이나 머리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평생 장애치료비와 의료비도 감안해야 한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인상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떠안을 부담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라크가 입은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도 과소평가의 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쟁이 초래하는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다음은 신형 인플루엔자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 자료를 소개한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으로 당시 세계적으로 6억 명의 인구가 감염되었다고 한다. 인구 약 3명 가운데 1명꼴로 사망자는 4, 5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Almond 박사는 90년 전의 스페인 독감이 임산부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모체의 환경은 물론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던 1919년에 태어난

아이와 스페인 독감 전후인 1918년 및 19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 이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하였다.

재미있는 결과는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1918년과 1920년에 태어난 아이에 비해 성장 후에 고교를 졸업할 확률도 15%나 낮았고, 임금도 5~9% 낮았으며, 빈곤에 빠질 확률은 15%나 높았다. 또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장애를 가질 확률도 높았고, 생활보호 수금액도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흑백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임신부의 모체 환경이 아이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능력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과 교육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까지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요하는 만큼 태아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비용은 단기적 효과만을 보아서는 곤란하다. 태아의 건강, 교육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사회적 선택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소개하였다. 경제 분석에서 비용-편익을 따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보다 엄밀하게 비용-편익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도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엄밀하며 투명한 선택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이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월호

실력테스트

1 다음 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초등학생 갑은 일주일 용돈으로 5,000원을 받는다. 갑은 용돈으로 싸과자와 MP3 파일만을 구입한다. 싸과자는 한 봉지에 1,000원이고 MP3 파일은 하나에 500원이다.

- ① 싸과자 한 봉지의 기회비용은 MP3 파일 2개이다.
- ② 부모님이 용돈을 올려 주어도 싸과자 한 봉지의 기회비용은 변함이 없다.
- ③ MP3 파일의 가격이 200원으로 하락한다면 싸과자로 표시한 MP3 파일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 ④ 용돈과 두 재화의 가격이 모두 100% 오르더라도, 갑의 두 재화에 대한 최대 구매 가능량은 변함이 없다.
- ⑤ 싸과자와 MP3의 가격이 모두 100% 오르더라도, MP3 파일로 표시한 싸과자의 기회비용은 변함이 없다.


2 다음 자료에서 갑의 경제적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약사인 갑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자기 소유 점포에서 전업 주부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개업할 예정이다. 약국 경영으로 월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각종 경비로 월 2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아내 대신 가사를 맡아줄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갑은 다른 약국에서 고용 약사로 근무하면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 ① 가사 도우미 고용은 GDP를 증가시킨다.
- ② 월 임대료 150만 원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 ③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은 월 150만 원이다.
- ④ 약국 운영에 드는 경비 2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에 포함된다.
- ⑤ 약국 개업이 고용 약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3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돈 1,000원으로 가격이 1,000원인 A, B, C 중 한 개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다음 활동지에 자신의 편익을 쓰고, 비용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작성해 봅시다.

**갑**

활동 1: 선택에 따른 나의 편익

A	B	C
1,200원	1,300원	1,500원

활동 2: 비용 측정 방법  
선택에 따른 비용은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가  
(으)로 측정한다.

**을**

활동 1: 선택에 따른 나의 편익

A	B	C
1,200원	1,500원	2,000원

활동 2: 비용 측정 방법  
선택에 따른 비용은  
기회비용  
(으)로 측정한다.

- ① 갑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② 을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③ 갑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을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갑과 을이 모두 C를 선택하였다면 갑과 을이 생각하는 순편익은 동일할 것이다.

[정답] 1. ③ 2. ③ 3. ④



## 개념 05

## 생산가능곡선

**키워드** 생산가능곡선 · 노동 · 자본 · 기회비용 · 기술진보 · 부존 자원

##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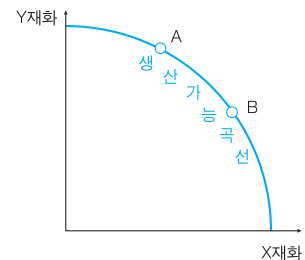
### 생산가능곡선과 기회비용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발생한다. 생산에서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산가능곡선**이란 한 사회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생산의 점들이기 때문에 A점과 B점은 모두 효율적인 생산 상태이다.

생산가능곡선에서도 선택의 문제는 발생한다. A점은 B점에 비해 Y재화는 많이, X재화는 적게 생산하는 점이다. 반면 B점은 A점에 비해 Y재화는 적게, X재화는 많이 생산하는 점이다.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이 많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도 부존량이 한정된 희소한 자원이다. 따라서 어떤 재화를 얼마나 더 생산할 것인가의 결정,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투입량의 결정 등 생산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에 투입될 부존 생산요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곡선상에서 한 재화 생산을 늘리면 다른 한 재화 생산을 줄여야 한다. A에서 B로의 움직임과 같이 생산가능곡선상에서 움직임은 한 재화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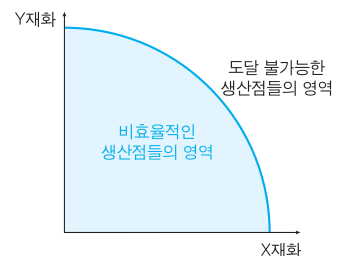
〈그림 5-1〉



### 생산가능곡선의 안쪽과 바깥쪽

생산가능곡선 상의 모든 점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점들이다. 만약 자원 중 일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생산가능곡선상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 안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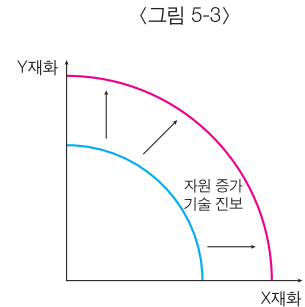
〈그림 5-2〉



생산점들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들이다. 반면 생산가능곡선 바깥의 점들은 기존의 주어진 자원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 🌱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생산가능곡선은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의 양과 기술에 변화가 발생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다. **기술이 진보**하거나, **부존 자원이 증가**하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반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부존 자원이 소실**되면 생산가능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 DP(Dangerous Point) | 실업과 생산가능곡선의 관계

실업이 감소하면 노동이 증가해서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실업이 증가한 상태는 모든 노동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산가능곡선 안쪽에서 생산이 이뤄진 것이다. 생산가능곡선은 모든 부존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상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면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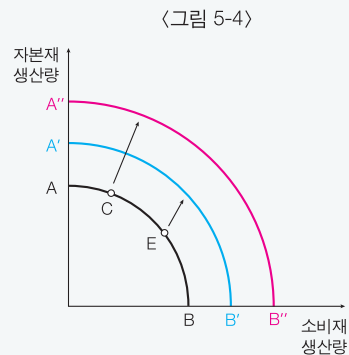
다만, 완전고용을 마찰적 실업이 없는 상태로 볼 경우 마찰적 실업이 줄어들어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고 서로 원하는 구인·구직이 늘어난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

1980년대 일본은 미국에 비해 매년 2배 이상의 자원을 자본재 생산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즉 <그림 5-4>에서 일본은 C점을, 미국은 E점을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일본은 미국인들이 누린 현재 소비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재 생산만이 생산가능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고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이다. 90년대 들어 정보기술(IT)산업으로 통칭되는 신기술 싸움에서 미국이 일본에 앞섰다. 그 결과 미국은 신경제(new economy)로 불리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사회가 현재의 생산가능곡선 AB상에서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예컨대 현재 E점을 택할 때 차기에 생산가능곡선은 A'B'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C점을 택한다면 차기에 생산가능곡선이 A''B'처럼 A'B'보다 더 바깥으로 이동한다. C점에서는 E점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생산능력을 확충시키는 자본재 생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원배분의 선택까지도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분석도구이다.



출처 : 안국신, 『경제학길잡이』, 율곡출판사, 2005

##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들은 반드시(?) 효율적인가?

**Q** :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에서 생산될 때 그 사회에 있는 생산요소가 다 사용된 것이라고 해서 효율적인 생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수요자들은 어떤 특정한 양의 X재와 Y재의 조합을 원할 텐데 기업(시장)은 항상 그 점을 맞춰줄 수 있나요? X재와 Y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씩 생산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이라 하더라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생산가능곡선 밖의 점에서는 생산이 일어날 수 없나요? 무리하게 생산요소를 더 투입한다면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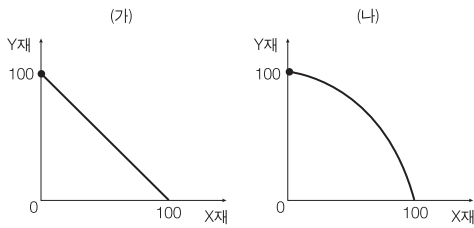
**A** : 현실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생산가능곡선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생산의 측면만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산가능곡선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원의 가능한 배분을 통해 두 상품의 생산가능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생산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무리하게 늘린다는 개념에는 노동시간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일하고 몇 시간을 쉬어야 효율적인지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 토요일 근무를 할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고는 효율성 이외에도 노조의 조직 여부나 기업 문화 등 여러 다른 조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가능곡선의 존재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에 적합하도록 분배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이미, 근무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최고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자원배분의 시간이 고려된 것입니다. 그 근무시간이 가령 하루 1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을 때, 질문한 학생은 2시간 정도 늘려서 12시간 일하게 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산가능곡선은 효율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산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실력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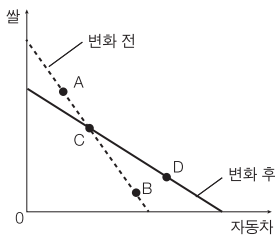
1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양의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보기>  
 ㄱ. X재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R점보다 Q점에서 더 크다.  
 ㄴ. (가)의 경우 X재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생산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ㄷ. (나)의 경우 Y재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ㄹ.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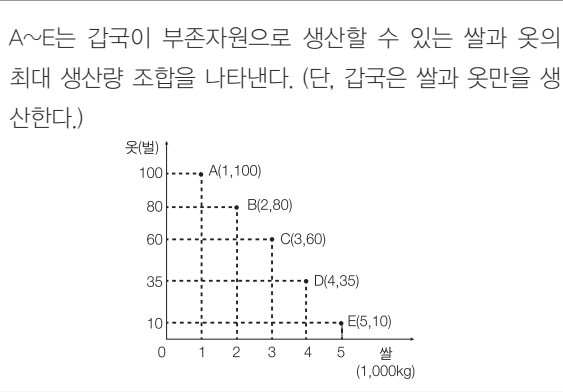
2 그림은 갑국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기>  
 ㄱ. 변화 전에는 A점보다 B점에서 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다.  
 ㄴ. 변화 후에는 C점보다 D점이 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ㄷ. 두 생산 가능 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ㄹ.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후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기>  
 ㄱ. B에서 A로 이동할 때, 옷 1벌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쌀 50kg이다.  
 ㄴ. 쌀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ㄷ. 옷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ㄹ. 쌀과 옷은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 또는 E보다 효율적인 생산량 조합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① 2. ⑤ 3. ②

## 개념 06

## 합리적 선택

**키워드** 합리적 선택 · 문제 인식 · 자료 및 정보 수집 · 대안 모색 · 대안 평가 · 대안 선택 · 결과 평가 · 비용과 편익 분석

### 개념설명

#### 합리적 의사결정의 5단계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문제 인식은 문제의 내용을 명확화, 구체화 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이때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며, 다음 선택을 위한 반성으로 활용한다. 다음은 합리적 의사결정 5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 비용과 편익 분석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은 대안 선택에서 발생하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때 총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총편익은 소비자에게 총효용이며, 생산자에게는 총수입이다.

## 핸드백은 명품, 코트는 기성복... 1인 소비 양극화 시대

넥타이는 명품을 고집하지만 양복·셔츠 등은 기성복을 산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해도 와인을 살 때는 까다롭게 고른다. 기존 상식을 뒤집는 소비패턴이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트로 굳어지고 있다.

불황으로 씬씀이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최근의 소비패턴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장이 둘로 쪼개지는 ‘소비양극화’ 시대는 이젠 케케묵은 옛 얘기가 됐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소비와 한 단계 낮은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1인 소비 양극화’가 최근의 소비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에 근무하는 이소은(25)씨는 자신을 ‘실속형 명품족’으로 부른다. 이 씨는 올해 취직 후 월급을 받으면서 80만 원의 거금을 들여 루이뷔통가방을 구입했다. 그렇다고 이씨의 씬씀이가 험한 것은 아니다. 즐겨 입는 옷들은 저가이면서 품질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로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다. “합리적 소비습관을 유지하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소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씨가 쓰는 화장품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그는 품질이나 기능차이가 크지 않은 색조화장품 등은 미샤 등 국산화장품을 애용한다. 하지만 로센·에센스 등 기초화장품은 개당 10만~20만 원하는 명품을 구입한다.

회사원 송용현(34)씨는 사내에서 소문난 멋쟁이로 통하지만 그가 걸친 옷들이 모두 고급브랜드나 명품은 아니다. 그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페라가모, 조르지오 아르마니, 불가리등 명품 넥타이를 하나씩 구입한다. 하지만 양복이나 와이셔츠 등은 백화점 세일 제품을 선호한다.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에 돈을 쏟아 부을 ‘여력’을 만들기 위해 관심이 덜한 제품엔 최대한 ‘짠돌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가.

제일기획 브랜드마케팅연구소 김익태 수석은 “한 사람의 소비자가 돌출적인 소비와 절약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평균적인 소비자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평균적이고 어중간한 가격의 상품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기업들도 이 같은 소비트렌드에 마케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품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조공정의 자동화·온라인화를 통한 대량구매는 물론이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 등으로 업체들이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을 높이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덜한 제품을 구입할 때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제품은 많은 비용을 들여 구입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이러한 소비는 결국 가치지향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황이란 변수에다 ‘웰빙’ 등 사회트렌드가 맞물려 ‘1인 소비양극화’로 대변되는

가치지향적 소비추구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1인 소비 양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 16일



토론 주제

위 신문기사에서 이소은씨의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일까? 합리적 소비란 어떤 것일까?

### 사람은 무엇으로 행동하는가?

사상가들이나 인문학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아마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일 것이다. 사실 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이름이기도 하다. 반면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으로 행동하는가”일 것이다. 요컨대 인문학자들이 인간 삶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면 경제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 톨스토이의 답변이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경제학자의 답변은 ‘인센티브’이다.

인센티브란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그마한 어떤 것”이다(레빗과 더브너, 『괴짜 경제학』). 따라서 “의도가 좋을지라도 복잡한 시스템에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인센티브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은 마음』). 그러나 인센티브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사회의 난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로버츠의 앞서 소설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제시된 바 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문제는 호송 도중 죄수들이 자주 사망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부터 이송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유인체계 변경을 꾀하였다. 이것은 누가 따로 호송선의 선장을 감시할 필요가 없이 선장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하는 방법이었고 이러한 물질적 유인의 도입은 영국의 사법당국을 괴롭혔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니지와 러스티치니의 2000년 발표 논문에는 인센티브에 관해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지역 택아소를 대상으로 부모의 지각을 막기 위해 벌금 제도 도입 실험을 행하던 도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 냈다. 벌금 제도 도입 이전에 한 택아소당 일주일 평균 8회 정도의 지각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각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왜 물질적 유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효과는 애초 기대와는 반대로 발휘되었을까?

전통적인 사고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은 이 결과를 두고 물질적 유인의 도입이 바람직한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를 몰아냈다고 해석하였다. 학부모들은 금전적 처벌 수단이 도입된 이후 늦을 수 있는 권리를 마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인 양 간주하였고 그 결과 아예 벌금을 내고 지각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인센티브에 기반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하이파의 실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인센티브는 미묘한 것이지만 인간은 더욱 미묘한 존재라는 점이다.

물론 보다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은 책정된 벌금이 낮아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만일 벌금이 시장 상황에 맞게 충분히 높았다면 억제되기를 바라는 행동의 발생은 확실히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왜 벌금이 없었을 때 시간 규칙을 준수하던 사람들조차 벌금이 도입된 이후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고 지각을 선택했는지는 설명해 내지 못한다(하이파 실험의 사례는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문제의 지문으로도 출제된 바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기반해 있다).

하이파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는 앞서의 주장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비단 하이파 실험의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금전적 동기와는 상이한 동기에 기반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문근영 씨나 지난해 태안반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변인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은 무엇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또다른 답이 될지도 모른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1월호

## 기부를 하는 이유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돕는 착한 본성은 타고난 것일까? 인간은 이타적 존재인가, 이기적 존재인가? 전통 경제학이라면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수 김장훈의 기부가 이기적 본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기(利己)는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꾀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수 김장훈은 이타성(利他性: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 감소라는 비용을 무릅쓰고 타인의 물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공공재 게임을 해보자. 우선, 게임의 참가자 4명을 모아 각각에게 1,000원의 초기 자금을 준다. 그리고 각자 받은 1,000원의 일부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4명의 기부가 끝나면 총 기부액의 2배를 4로 나누어 균등하게 각자에게 분배해준다고 알려준다. 한 참가자가 기분 좋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으려 하다가 잠시 멈춘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전액을 기부하면 2,000원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1,000원을 내고 돌려받는 돈은 고작 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얼마를 기부할까? 답은 0원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부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기부한 총액을  $K$ 라고 하면, 기부 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금액은 1,000원 중 기부하고 남은 금액인  $(1,000 - \text{기부액})$  과 기부금 총액의 2배를 4로 나눈  $\{(기부액 + K) \times 2\} / 4$  를 더한 값이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00 + (K - \text{기부금})\} / 2$  이 되고, 이 값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이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이 얼마를 기부하건 간에 나는 무임승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동시에 하게 되는 순간 기부는 사라지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도 초기 보유한 1,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만약 모두가 힘을 모아 1,000원씩을 기부했다면 모두 2,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는 유명한 게임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동일한 게임을 10번 실행한 결과 첫 번째 게임에서는 평균적으로 30~50%의 사람들이 기부(협력)했으며, 게임의 횟수를 늘려감에 따라 그 비율은 감소했다. 마지막 열 번째 게임에서는 10~15%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이기적 행동을 취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아니라는 것이며 이타심이 작용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 이타심 때문일까?

이번에는 ‘독재자’(dictator) 게임을 보자. 독재자는 약간의 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익명의 A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실험결과 독재자의 70%가 받은 돈의 일부를 A에게 주었으며 기부금액의 평균은 처음 받았던 돈의 25%였다. 이타심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독재자의 선택권을 넓혀보자. 상황은 위와 같지만 독재자가 원하는 경우 A에게서 1달러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선택을 추가했다. 이타적이라면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실험 결과 독재자의 35%만이 돈의 일부를 A에게 주었을 뿐 45%는 A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는 오히려 1달러를 A에게서 빼앗았다는 점이다.

한발 더 나가서 A가 자신이 받은 돈과 같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독재자에게 들려주고, 원하면 A의 모든 돈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한 후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독재자의 10%만이 A에게 돈을 주었으며 60%는 돈을 빼앗아 왔다. 심지어 40%는 A의 모든 돈을 빼앗아 왔다. 자비심 많은 독재자가 한순간에 폭군이 된 것이다. 이 내용은 존 리스트의 실험결과(2005)를 인용한 것이다.

앞의 공공재 게임을 했던 행동경제학자들이나, 심리학자·사회학자의 눈에 비친 기부 등의 행위는 이타성의 발현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기부나 이타심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기부를 하는 것도 자신이 좋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자신의 만족이 커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돈을 내고 대가로 뿌듯함을 샀다는 것이다. 혹은 기부하지 않을 경우 느끼는 죄의식을 버리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베커 교수는 “거지에게 돈을 기부하는 이유는 그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쾌함이나 죄의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인당 기부액에 있어서 세계의 선두에 있지만 기부했을 경우 세금공제에 가장 관대한 나라 중 하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기부가 이타심의 발현이라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공팔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8만 명인 반면 매년 1만6천 명만이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초과수요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자 명단을 손에 들고 기약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타심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 미국과 달리 장기 기증이 돈이나 다른 보상에 의해 총당되는 이란의 경우 기다리지 않고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이타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집단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든 부모를 자주 방문하고 보살피는 것은 진정 이타심 때문일까? 서머스 등 3명의 경제학자가 모여서 이에 관한 보고서(198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들은 물려받을 유산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은퇴한 노부모를 더 자주 방문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자는 유산을 다루지 않아도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둘 이상 되는 가정이 되어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위 사실들은 인간의 기부나 이타적 동기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부 행위나 이타적 행동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타심이 인간 본성이라거나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부나 이타심도 유인(incentive)에 반응하는 행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부 등의 행위는 자신에게 뿌듯함 등의 만족을 주거나 세금공제 등의 혜택이 돌아가는 유인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좋고 나쁨’의 판단기준은 아닌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12월호

실력테스트

1 다음 (가), (나)에서 경제 행위자들이 예측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변동 금리보다 높은 고정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변동 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변하지만, 고정 금리 대출은 이자 부담이 일정하다.  
 (나) 고금리의 장기 저축 상품보다 저금리의 단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단, 장기 저축 상품은 중도 해약하면 단기 저축 상품보다 이자 수입이 적다.

(가)

- ① 대출 금리 인상
- ② 대출 금리 인상
- ③ 대출 금리 인하
- ④ 대출 금리 인하
- ⑤ 대출 금리 인하

(나)

- 예금 금리 인상
- 예금 금리 인하
- 예금 금리 인상
- 예금 금리 인하
- 예금 금리 불변

2 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OO헬스클럽 이용자는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 월 회비 없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원을 낸다.  
 B : 월 회비 4만 원을 내면 1회 이용할 때마다 5천 원을 낸다.  
 C : 월 회비 12만원 원을 내면 1개월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1개월에 10회를 이용할 경우 B 방법을 택한다.
- ㄴ. 월 9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횟수는 9회이다.
- ㄷ. 월 10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횟수는 12회이다.
- ㄹ. 1개월에 12회를 이용할 경우 A 또는 C 방법을 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해외 여행에 대한 갑의 의사 결정 과정 중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럽 여행을 계획하던 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로 달러 가치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 ① 미국의 경기와 환율 추이를 파악한다.
- ②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미국과 유럽 여행에 대해 평가한다.
- ③ 달러 가치 변동 소식으로 미국 여행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④ 외국 여행을 위해 회사에서 언제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한다.
- ⑤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여행 계획을 늦춘다.

4 ㉠, ㉡에 알맞은 인터넷 쇼핑몰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쇼핑몰	할인 정책
A	배송료만큼 할인
B	3개 구입할 때마다 1만 원 할인
C	6개 이상 구입 시 1개 추가 증정
D	상품 가격의 10% 할인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4개가 필요하시다면 쇼핑몰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7개가 필요하시다면 쇼핑몰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A | C | ② | B | A |
| ③ | B | B | ④ | D | C |
| ⑤ | D | D |   |   |   |

5 그림은 ○○공항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옳은 경제적 해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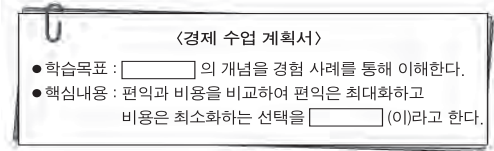


—<보 기>—

㉠. 선택의 결과 영희와 철수의 편익은 증가하였다.  
 ㉡. 시장 원리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 영희와 철수의 기회비용은 동일하다.  
 ㉣. 영희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6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경제적 개념을 옳게 적용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 기>—

㉠. 난 어제 영화를 보러 갔다가 구매한 영화표를 잃어버렸다. 그래도 나는 영화가 보고 싶어 표를 다시 구매하였다.  
 ㉡.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는 집안일을 분담한다. 최근 아내의 시간당 임금이 나보다 높아졌다. 나는 아내보다 집안일 더 많이 하려고 노동 시간을 줄였다.  
 ㉢. 나에게서는 음악 파일보다 게임 아이템이 더 가치가 있지만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여 같은 양을 구입했다.  
 ㉣. 나는 ○○마트에서 2만 원짜리 화장지를 1만 원에 판다면 사러 가겠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100만 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99만 원에 판다면 할인율이 낮아서 차라리 홈쇼핑에서 100만 원을 주고 사겠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④ 5. ① 6. ①

# 3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 개념 07

## 경제체제

**키워드** 체제 · 경제체제 · 전통경제체제 · 현대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 · 사유재산제 · 계획경제체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 · 사회주의경제체제 · 혼합경제체제

### 개념설명

#### 경제체제란

체제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체이며, **경제체제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는가에 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체를 말한다. 개인 · 사회 ·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희소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배의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사회는 존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와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 전통경제체제

근대 이전의 경제체제를 통칭하여 **전통경제체제**라 한다. 전통경제체제는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한다. 전통경제체제는 신분 · 성별 · 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경제체제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으나, 과거를 답습하고 새로운 시도가 제한되어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도 있다.

#### 현대경제체제

**현대경제체제**는 분배 방식에 따라 다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분배가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때문에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 **사유재산제**를 특징으로 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극단적으로 소외되거나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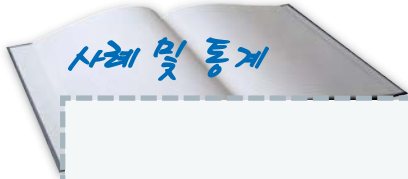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지나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경제체제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체제이다. 현대경제에서도 어느 사회에나 전통경제체제의 요소도 일부는 작용하고 있듯이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순수한 계획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장과 계획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 7-1〉 현대 경제 체제의 분류

구분		생산과 분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	계획 경제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
		예)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 우리나라	예) 개발독재국가, 60~70년대 한국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
		예) 중국, 북한의 경제 특구	예) 북한, 쿠바



## 헌법에 나타난 경제체제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헌법 조항이다.

###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부분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성공단 급식 메뉴가 동일한 이유

“북한 근로자에 추석선물 뭘 주냐?” “생필품과 화장품, 먹거리 중 무슨 선물이 좋을까?”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줄 한가위 선물로 고민에 빠졌다.

다른 입주업체들과 명절 선물이 다를 경우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비공식 회의를 열고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리빙아트가 첫 준공식을 가진 이후 최근 들어서야 본격 가동을 하게 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서는 사실상 첫 명절 선물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한 시계업체 로만손의 김기문 대표는 “북한은 비누와 치약, 세제, 타월 등 생활필수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른 입주업체들과 상의해 생활필수품으로 품목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업체인 호산에이스의 조동수 사장은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화장품을, 남성 근로자들에게는 참치·햄·과일·생선·육류 등 먹거리 선물 세트를 주고 싶다”며 “다른 업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선물 품목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근로자들은 다른 입주업체들과 구내식당 메뉴까지 비교하는 등 ‘평등한 대우’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조 사장은 “인근 공장에서 고깃국을 주고 우리는 된장국만 주면 불만이 터져 나온다”며 “초코파이와 탄산음료를 준비하는 등 간식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05년 9월 14일

### 동독의 트라반트 자동차와 경제체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동독 사람들이 차를 타고 서독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동독의 국민차가 트라반트이다. 동독의 유일한 자동차 모델이었고, 이 차의 구입을 위해 동독 사람들은 14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동독은 1970년대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 자동차의 성능은 강화 플라스틱에 2기통 오토바이용 엔진을 장착했다고 한다. 사실 자동차라 하지만 엔진의 성능에서 요즘 자동차와 비교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트라반트는 출시 첫 해부터 사용한 2기통 엔진을 생산되던 마지막 해까지 고수했고 디자인 변화도 없었다. 목화 섬유가 포함된 플라스틱 차체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태우면 유독 가스가 심했고, 별도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가솔린에 섞어 넣어서 매연이 너무 나 심했기 때문에 커다란 환경문제가 된 자동차이다.

1970년대 동독이 이러한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체제경쟁을 하는 미국 등과의 격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국민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줄 것처럼 약속 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많았다. 당시 소련만 놓고 보더라도 국방, 우주 등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앞섰지만 생필품의 품질은 조악하고 늘 공급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였다. 궁극적으로는 계획경제로 인해 시장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라반트 자동차는 요즘으로 말하면 동독의 국민차다. 당시 미국은 마이카 시대에 들어 체제 경쟁에서 한발 앞선 형국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트라반트 자동차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급하려 했던 것이다. 여하튼 트라반트 자동차는 통독 이후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진귀한 자동차가 되었다. 서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능이나 환경 측면에서 형편없는 트라반트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인지 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이 자동차를 두고 계획경제체제를 비아냥거리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많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트라반트 자동차가 붉은 신호등에서 멈춰 서 있다.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자동차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 하는데 서독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을 내놓는다. “자동차 바퀴에 껌이 붙어 있어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고.

트라반트 자동차가 새로운 디렉스형을 개발했다고 한다. 디렉스라는 의미에 어울리게 실내를 크게 했다거나 내부의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니라 뒷유리창에 열선을 깔았다는 것이다. “열선만 장착했는데 왜 디렉스형이라고 할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 서독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 준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손 따뜻하라”고.

트라반트 자동차 값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서독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답은 “현재의 기름 탱크에 기름만 가득 채우면 두 배로 오른다”고.

이상의 우스갯소리는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했던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상품이 시장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생산되다 보니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쟁도 없어서 품질이나 성능을 향상시킬 유인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가들의 기준에서 보면 거의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트라반트가 동독에서 오랜 동안 국민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트라반트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계획경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음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새삼 크다고 하겠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7월호

〈그림 7-1〉 트라반트 자동차



트라비(Trabi)라는 애칭으로도 불린 트라반트 P601은 냉전시대의 종식을 예감하게 했던 베를린 장벽 붕괴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출처 : 삼성자동차박물관)

##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 『정치경제학원리』(1848)는 베스트셀러로 생전에 무려 일곱 판이나 찍었고, 1919년 마샬의 『경제학원론』(1890)으로 대체될 때까지 옥스퍼드 대학의 교과서로 쓰였다. 세 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세 때 정치경제학 공부를 시작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독파했다. 엄격한 공리주의자였던 아버지와 둔한 감성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한 때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다.

밀은 헤리어트 테일러라는 남편 있는 여성을 20여년간 순수한 친구로서 교제하다가 그녀의 남

편이 사망한 후 1851년에 결혼해서 7년간 같이 살았다. 그녀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예속』 등으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1858년까지 35년 동안 영국 동인도회사에 근무했고,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서 1865~68년간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밀이 활동했던 시대에 산업혁명 등으로 자본주의는 성숙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갈등과 노동자 대중의 빈곤과 무지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25년을 계기로 주기적 공황도 발생했다. 이를 배경으로 오웬, 생시몽, 푸리에 등의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나가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했다. 밀은 생산은 물리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분야로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분배는 법이나 제도 등으로 인간이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임금으로 지급되는 기금이 일정하며, 노동자 개인의 임금액은 이 기금총액을 노동자총수로 나눈 것이라는 임금기금설을 주장했지만 뒤에 가서 이를 포기하고 이윤을 저하시켜 임금을 인상할 것을 옹호했다.

밀은 비례세를 옹호했다. 평등한 조세는 희생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누진세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것으로 ‘온건한 형태의 도둑질’이라는 것이다. 대신 상속재산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무겁게 매길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보통 노동자들이 무지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보편적 의무 교육을 강조했다.

밀은 현실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말년에 가서 사회주의에 가까워져 갔다. 부분적 실험을 통해서 진전시키려 하고 기여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오웬 등의 점진적 사회주의는 수용했다. 그러나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중앙 기구가 생산을 결정하는 공산주의는 경제활동 동기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므로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밀은 절충적인 경제학자로 불린다. 그의 경제사상은 고전파, 신고전파, 개량적 사회주의 등이 뒤섞여 있다.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자유방임을 배격하고 제한적인 정부 개입에 찬성했다. 당시 시대적 여건에 따른 모색이자 한계라 할 수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5월호

##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1818-1883)는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다. 예나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844년에 『경제학·철학 초고』를 쓰면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1848년에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

언』을 발표했고, 프랑스, 벨기에를 거쳐 1849년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경제학 연구와 자본론』 집필에 남은 생애를 바쳤다. 『자본론』은 1, 2, 3권을 합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대였다. 자본가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렸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제대로 없었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이론을 내놓았다.

『자본론』에 담겨 있는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핵심은 잉여가치론과 공황이론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는 투하된 노동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은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 즉 생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물자의 가치 이상을 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잉여가치이고 이윤, 이자, 지대 등은 모두 이 잉여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더 좋은 성능의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면 다른 자본가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생산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생활수준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경쟁적 투자는 결국 투하자본을 크게 키우게 되고 그만큼 이윤을 증가시키지는 못해 결국 이윤율이 하락된다. 이윤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위축되면 공황이 오게 된다. 공황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되면 과잉생산이 처리되어 경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철학자로서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수가 증가되는데 주기적인 공황과 실업으로 노동자계급의 삶이 파괴되면 혁명운동이 성장하여 자본주의를 변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케인즈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순환을 완화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황금기를 맞이했으나 근본적 문제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이윤율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이 심해져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발행을 늘려도 투자증대 효과는 없고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세계화,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노선으로 전환하여 투자 활성화를 통한 불황 극복을 추구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고, 주기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직도 빈곤에 놓여 있는 일부 계층이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으로 물질

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집권 정당을 교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표시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다. 서구 국가에서 노동자와 일반국민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그것이 가져온 성과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6월호

실력테스트

1 다음 글의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엄격한 (가) 을/를 고수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 주장 1 : “현 경제 체제는 (나) 와/과 정부의 통제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노동 의욕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이/가 필요하다.”
- 주장 2 : “현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므로 (라) 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생산성 증대가 요구되는 만큼 (마) 이/가 필요하다.”

- ① (가)-계획경제
- ② (나)-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
- ③ (다)-경제적 유인의 제공
- ④ (라)-능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
- ⑤ (마)-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

2 표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4개 국가의 현재 상태를 경제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적 평등의 정도 \ 정부 개입의 정도	약함	강함
낮음	A국	B국
높음	C국	D국

<보 기>

- ㄱ. A국은 B국보다 정부 규제가 많을 것이다.
- ㄴ. A국은 C국보다 빈부격차가 클 것이다.
- ㄷ. B국은 D국보다 사회 보장 제도가 더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 ㄹ. C국은 D국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에 더 의존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A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의 ㉡공영 기업에서 근무하는 갑은 이번 달 ㉢월급을 받았다. 퇴근길에 국영 상점으로부터 3년 전 신청한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는 차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국의 냉장고 가격은 ㉤5년째 변동이 없었다.

- ① ㉠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라고 주장한다.
- ② ㉡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 ③ ㉢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 ④ ㉣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였다.
- ⑤ ㉤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4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① 갑이 을보다 큰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 ② 갑보다는 을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 ③ 갑은 개입주의를, 을 비개입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 ④ 외부성 문제는 갑보다는 을 주장의 근거를 강화해 준다.
- ⑤ 대공황은 을보다 갑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5 밑줄친 '전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그들은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 일을 하며, 무엇이든 남에게 거저 주는 법이 없다. 그들의 세상에서 한 인간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그들에 비해 가난하지만 마음은 더 부유하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의 간섭 없이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 ① 교환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② 소득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정당화된다.
- ③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 ④ 정부의 계획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 ⑤ 효율성의 원리보다는 형평성의 원리를 중요시한다.

6 다음 자료는 교사의 수업 내용 중 일부이다. 밑줄 친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경제 체제는 크게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경제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략)... 경제 체제에 따라 무역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제 체제에서 무역은 정부가 국내 경제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수량은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교역 조건 또한 정부 사이의 협상을 통해 조정됩니다.

- ① 경제적 유인이 경제 운영의 원동력이다.
- ② 정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 ③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 ④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 ⑤ 정부는 사유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7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은 인간의 계획 능력을 과신하였고, (나)은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과대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에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보 기>

- ㄱ. (가)는 경제적 동기 결여로 인해 형평성이 떨어진다.
- ㄴ. 현대 복지 국가는 (가)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ㄷ. (나)의 문제점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들 수 있다.
- ㄹ. (가)와 (나)의 구분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④ 5. ⑤ 6. ③ 7. ⑤

개념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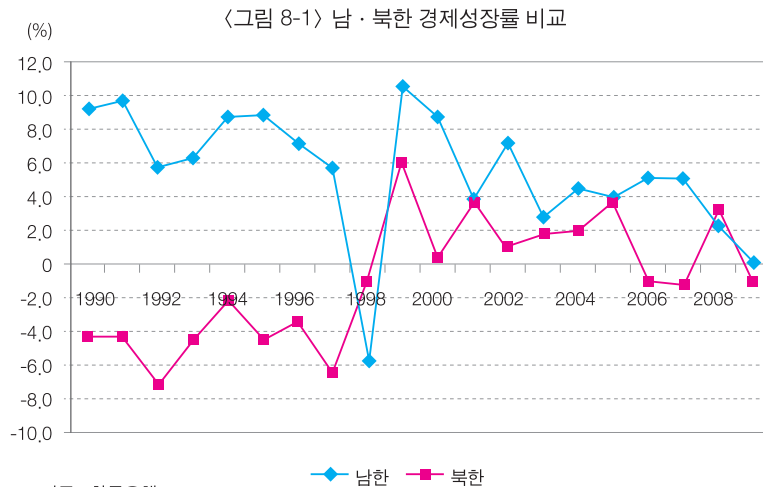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

**키워드** 남북한 경제체제 · 남북한 경제성장률 · 남북한 경제규모

개념설명

**남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남한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에 의한 분배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이다. 식민지 수탈과 6·25 전쟁을 겪은 남한 경제는 1960초반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이후 추진된 경제성장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북한은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것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를 개방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외국과의 교역에 폐쇄적이어서 세계화 시대에 많이 뒤쳐져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로 인한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에 놓여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후인 2008년, 북한은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이 또다시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2007년 기준으로 남한경제는 북한경제의 38배 규모이고, 인구 1인당 규모도 18배에 이른다.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쇠퇴는 최근 인구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의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해 남한(4.1명)에 비해 5배가량 높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기대수명도 3년이나 줄어 69.3년을 기록했다.

〈표 8-1〉 남·북한 경제 규모 비교

단위 : 배(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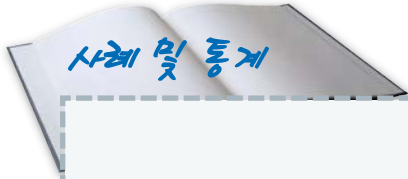
	1990년	2007년
국내총생산	13.3	38.5
농림어업	3.3	4.0
광업	1.4	1.2
제조업	10.6	64.8
전기가스수도업	4.4	17.9
건설업	15.4	35.7
서비스업	28.7	56.7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32.3	247.6

### 분단이후 남북한 경제의 변화

이제 남북 간의 경제성장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남한의 고도성장과 함께 우리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체제 위협보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적 한국경제 손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분단상황 때문에 해외 투자가 지연되거나 투자를 주저하는 시선이 있다. 이처럼 남북 관계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북한과의 경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 원조를 넘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이다.

###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 1960년대 경제노선 :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되고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를 추구
- 1970년대 경제노선 : 대외 개방 추진
- 1980년대 경제노선 : 합영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지출 유치 추진
- 1990년대 경제노선 :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 설치, 외국자본과의 합작 투자, 남한의 제한적 투자 허용
- 2002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국제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일부 변화
- 2006~2008년 : 국제 분업 강조, ‘세계속 조선’, ‘21세기형 자력갱생’을 강조



## 남북 교역 추이

〈표 8-2〉 남북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반입	152,373	176,170	271,575	289,252	258,039	340,279	519,542	765,345	932,250
반출	272,775	226,787	370,155	434,965	439,001	715,472	830,198	1,032,552	888,117
계	425,148	402,957	641,730	724,217	697,040	1,055,751	1,349,740	1,797,897	1,820,366
실질교역수지	-61,315	-110,639	-197,419	-169,485	-168,017	-220,776	-325,592	-500,203	-439,844

주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 무상지원(미간, 정부), 경수로 건설, KEDO중유,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사회문화, 기타)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을 비교한 개념임.

출처 : 통일부

2000년대 이후 남북 양국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남북 관계 완화 요인에 따라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후 200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던 교역은 2007년 이후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남북 간의 안정과 상호이익을 얻고자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지만, 아직은 그 성과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불안하게 변동하는 수준에 있다.

## 남·북한 경제 지표 비교(2009년)

〈표 8-3〉 남·북한 경제 지표 비교(2009년)

	단위	남한	북한	남·북
인구	천명	48,747	24,062	2.0
경제성장률	%	0.2	-0.9	-
명목 GNI	억달러	8,372	224	37.4
1인당 GNI	달러	17,175	960	17.9
무역총액	억달러	6,866	34	201.9
발전량	억kWh	4,336	235	18.5
원유도입량	천배럴	835,163	3,795	220.1
자동차생산량	천대	3,513	4	878.3
도로총연장	km	104,983	25,854	4.1

자료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0」

# II

## 시장과 경제활동

1. 시장 가격의 기능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 1 시장 가격의 기능

개념 09

시장

**키워드** 시장 · 완전경쟁시장 · 가격 수용자 · 독점시장 · 가격 설정자 · 과점시장 · 독점적경쟁시장 · 제품차별화 · 생산물시장 · 생산요소시장 · 노동시장 · 자본시장

개념 설명

## 시장이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의 가격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미리 제시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 불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장하면 재래시장 · 주식시장 · 인력시장 등 각양각색의 시장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용역)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서로 협상하는 모임을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사회의 구성원들은 교환이 없는 경우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생산자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며, 소비자는 제한된 소득으로 가능한 한 큰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이익추구 행위 덕분에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교환 활동에 참여한 개인들은 시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경쟁한다.



## 경쟁의 정도에 따른 시장 종류

경쟁의 정도에 따라 시장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적 차이, 진입장벽 등이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하며 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개별 경제주체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한다. 이를 **가격수용자(price taker)**라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은 독점 등 다른 시장에 비해 낮다.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생산자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경우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철도·수도 같은 **독점시장**에서는 생산자 간의 경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생산자는 생산량 혹은 가격을 자신의 이익이 가장 커지도록 조절한다. 따라서 독점시장의 생산자는 **가격설정자(price sett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생산량은 적다.

어떤 시장에서는 자동차나 이동통신회사 같이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를 **과점시장**이라고 한다. 과점시장도 독점시장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독점시장만큼 높지는 않아서 소수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진다. 소수가 모여서 경쟁하기 때문에 과점시장에서는 어느 한 생산자가 가격과 생산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른 생산자에게 즉각 영향을 준다. 즉, 과점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숫자가 적어 서로 간에 의존성이 크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상황이 전개된다. 그 결과 매우 경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생산자들끼리의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경우 독점시장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과점시장과 달리 독점시장은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업간에 상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완전경쟁시장은 너무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장은 음식점·미용실 같이 조금씩 질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독점적경쟁시장**이다. 독점적경쟁시장은 독과점시장과 달리 진입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달라서 독점력을 가진다. 따라서 각 생산자들은 주로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재화나 서비스라도 각 생산자마다 디자인, 품질, 결제 방식, A/S 등에서 어느 정도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각 생산자들은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를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정 생산자의 단골 고객이 된다(두산 『경제 교과서』 일부 참조). 독점적경쟁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차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간의 독점력과 진입과

탈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구분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산물 시장**은 쌀·영화와 같이 소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 생산물시장에서 가게는 생산물의 수요자는 가게이며 기업은 해당 생산물의 공급자가 된다.

**생산요소시장**은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곳으로 이곳에서 가게는 요소 공급자로, 기업은 요소 수요자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이란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한다. 다만, 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노동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자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건물·기계 등 다른 재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입 요소 측면의 자본재(capital goods)를 의미하며, 자본재가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 혹은 자본재시장이라고 한다.



#### DP(Dangerous Point) | 자본의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설명된 자본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자본(資本)** 「1」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

「2」『경제』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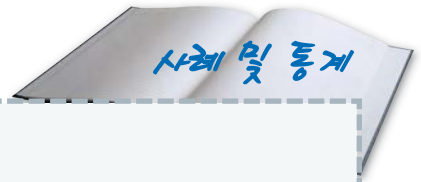
일상의 생활에서 자본은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이것과 상당히 다르다. 물론 장사나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을 밀천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을 구입하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밀천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통상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2010년 3월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1편 총칙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금의 거래가 이뤄지는 조직화된 장소인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에 관한 법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나타난 개념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아니다. 경제학에서 생산수단이나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로서 자본이란 새로 구입하

는 공장부지, 기계 등의 자본재(capital good)를 의미하다. 컴퓨터 1대를 자본재로 투입하는 경우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 자본은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노동을 투입한다면 사람이 생산 요소로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시장의 종류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표 9-1〉 재래시장 현황 I

(단위 : 개)

지역	2005	2006	지역	2005	2006
전체	1,660	1,610	전북	69	69
서울	262	226	강원	69	68
부산	192	191	충북	58	56
경북	192	191	인천	50	50
경남	177	175	울산	45	43
경기	153	157	대전	37	36
전남	125	123	광주	27	29
대구	107	98	제주	20	20
충남	7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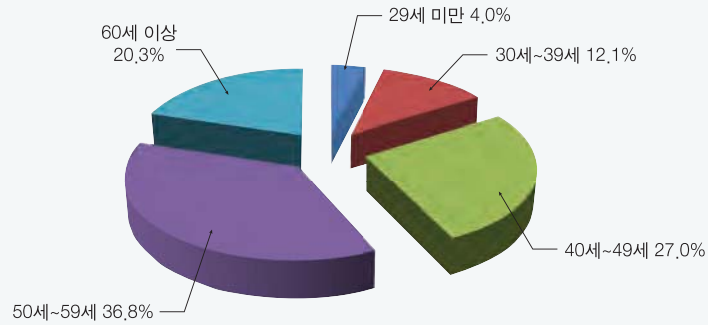
〈표 9-2〉 대형마트 현황

	2003	2004	2005	2006
점포수(개)	250	276	307	342
매출액(조원)	19,5	21,58	23,5	25,4

〈표 9-3〉 수도권 대형마트 집중 현상

	서울	인천	경기	소계
숫자(개)	55	21	84	160
비중(%)	16,6	6,3	25,4	48,3

〈그림 9-1〉 재래시장의 증사장 연령분포



〈표 9-4〉 재래시장 현황 II

	2004	2005	2006
점포수	-	239,200	225,725
총시장상인	-	396,229	352,646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명)	1,927.7	1,782.4	1,581.2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명)	15.4	14.3	13.3
증사자당 일평균 고객수(명)	9.2	8.6	8.9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만원)	6,352.0	5,801.4	4,236.4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만원)	51.2	47.0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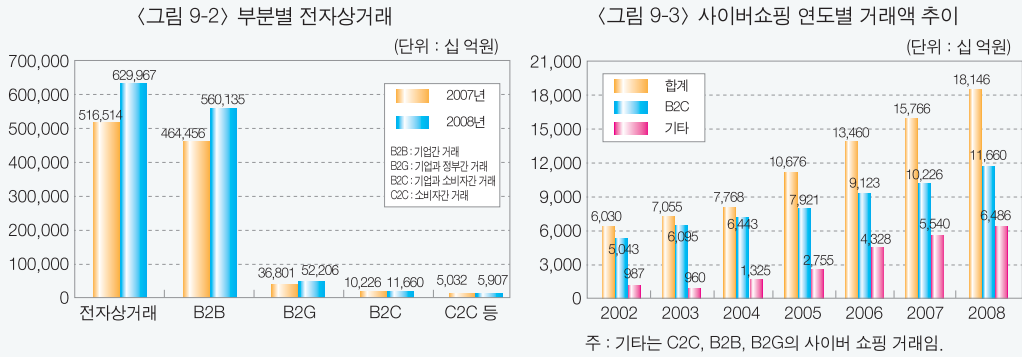
### 새로 떠오르는 시장 : 전자상거래의 발달

〈표 9-5〉 사이버쇼핑 상품군별 거래액

(단위 : 십억원, %)

	2007년		2008년	
	거래액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합 계	15,766	100.0	18,146	100.0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	2,714	17.2	2,996	16.5
여행 및 예약서비스	2,416	15.3	2,857	15.7
가전·전자·통신기기	2,326	14.8	2,466	13.6
생활·자동차용품	1,485	9.4	1,710	9.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42	9.8	1,636	9.0
아동·유아용품	868	5.5	1,027	5.7
음·식품료	731	4.6	1,009	5.6
농수산물	393	2.5	493	2.7
음반·비디오·악기	93	0.6	111	0.6
∴	∴	∴	∴	∴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4월호

## 구글, 온라인 패션시장에 도전장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은 17일(현지시간) 패션 이커머스(e-commerce) 사이트 ‘부티크스닷컴(Boutiques.com)’을 선보였다. 구글은 부티크스닷컴으로 의류, 액세서리 등을 찾는 온라인 고객들을 끌어들이 계획이다.

고객들은 여기서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비교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제안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자신의 개인화된 부티크를 개설해 그들의 스타일대로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의 출사표로 온라인 패션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0억 달러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아마존닷컴과 이베이는 온라인 패션시장에서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부티크스닷컴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대신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잘 사하 구글 제품담당매니저는 “고객들의 스타일과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옷을 골라주기 위해 수백명의 유명스타,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등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웹에서 검색하려던 사람들이 부티크스닷컴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미 구글은 메인 화면에서 트래픽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제품 등으로 특색화된 독립형 제품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명 온라인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는 검색 수에 있어서 구글에 한참 뒤처져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 8월 쇼핑관련 비교검색전문업체인 ‘라이크닷컴(Like.com)’을 1억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부티크스닷컴은 일단 미국서만 이용 가능하며 여성 의류만을 다룬다. 구글 측은 조만간 영역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0년 11월 18일

### 시장 지배력과 시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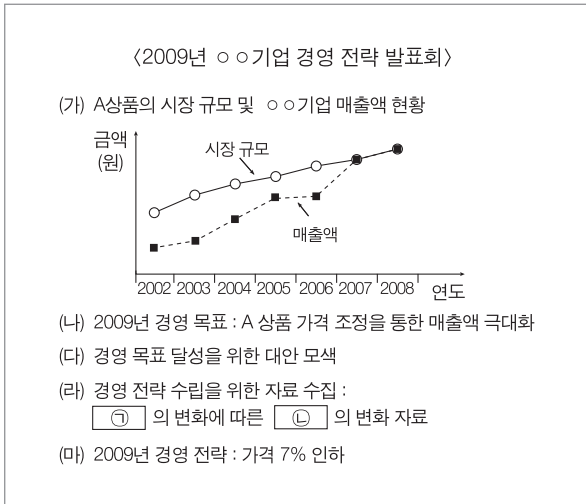
거래는 자유의사로 일어나는 만큼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래가격을 외부인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흥정과정을 좌우하는 협상력이 부당하다면 문제가 다르다. 부당한 협상력으로 자신의 거래이익을 키우는 행위는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즉 부당한 협상력이 작용한 쌍방 합의와 그 가격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보통 각각 여러 사람들과 사고 파는 거래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내 거래기회의 상대방들 간 경쟁은 나의 협상력을 강화시킨다. 시장거래과정의 협상력을 특히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이라고 한다. 가격은 파는 쪽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면 높게, 반대로 사는 쪽이 강하면 낮게 결정되는데, 시장 지배력에도 정당한 시장 지배력과 부당한 시장 지배력이 있다.

시장 지배력은 결국 자신의 거래기회는 늘리면서 거래 상대방의 다른 거래기회를 줄이면 강화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부단히 내 경쟁자보다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고객들이 내 경쟁자들을 외면하고 나하고만 거래하려 하면 나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 독점(monopoly) 은 이러한 시장 지배력의 완결본이고 몇 개의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분점하는 과점(oligopoly) 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1월호

[1~2]



1 위 자료의 (가)를 통해 A상품의 2008년 시장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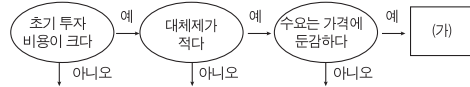
- ① 초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 ②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했을 것이다.
- ③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했을 것이다.
- ④ 다수의 공급자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했을 것이다.
- ⑤ 시장 기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을 것이다.

2 (라)의 ㉠, ㉡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① 가격  | 수요량 | ② 가격  | 생산비 |
| ③ 생산비 | 공급량 | ④ 공급량 | 생산비 |
| ⑤ 수요량 | 가격  |       |     |

3 그림에서 도출되는 시장 형태 (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① 이러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자유롭다.
- ②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높다.
- ③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규모는 대체로 작다.
- ④ 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⑤ 이 시장에서는 가격 기구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정답] 1. ② 2. ① 3. ②

## 개념 10

## 가격

**키워드** 가격 · 희소성 · 아담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 임금의 하방경직성

## 개념 설명

###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강의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값 혹은 가치를 **가격(price)**이라고 부르지만, 가격은 다양한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토지나 주택을 빌린 대가로 지불되는 임대료, 빌려 쓴 돈에 매겨지는 이자율, 그리고 외국돈과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인 환율 역시 가격의 일종이다.

가격에는 재화의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생산한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시장가격에는 해당 재화를 생산·판매할 때까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소비자는 재화 구입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만족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커야 소비한다. 만족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가격은 희소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재화는 희소성이 높은 재화이다. 재화의 희소성이 높을수록 남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희소성이 높은 재화는 시장가격이 높게, 희소성이 낮은 재화는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두산 『경제 교과서』 참조).

### 가격의 기능

재화와 생산요소는 매일 어디로인가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보면 된다. 누가 자신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시장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시장은 재화와 생산요소에게 갈 길을 안내하여 주는 신호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장 가격이다. 이 신호등은 가격이 높을수록 짙은 초록색을 띠며, 가격이 낮을수록 짙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동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재화와 생산요소는 초록색이 가장 짙은 신호등을 따라가

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곧 자신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효용을 얻거나 또는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자원이 가장 높은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 자원의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높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경제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다보면,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담 스미스(Smith, A.)**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에 의한 조화라고 하였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며, 시장가격은 곧 ‘보이지 않는 손’인 것이다(교학사 『경제 교과서』 참조).

## 가격의 결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주어진 가격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인 수요량이 생산 및 판매하려고 하는 수량인 공급량에 비해 많다면 부족이 발생한다. 부족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설명한 시장의 신호등 기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이 항상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케인스는 임금이 오르는 쉽지만 한번 오른 임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혹은 정부가 특정 재화에 최고·최저 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사례 및 통계

### 대부시장과 이자라는 가격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시장을 대부시장이라고 한다. 대부시장은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 시장이나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리스 시장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동차나 기계를 빌릴 때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듯이 돈을 빌릴 때도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 개념의 이자를 지불한다. 다만 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돈을 빌리는 대가로 돈을 내기 때문에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

는 비율을 뜻하는 이자율을 사용한다. 이자율이 연 10%라면 100만 원을 1년간 빌릴 때 원금 100만 원 외에 이자 10만 원을 얹어서 주어야 한다. 이를 렌터카 시장에 비유하면 100만 원은 타고 돌려주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10만 원은 자동차 사용료라 할 수 있다.

결국 대부시장도 일반 시장과 다를 바 없이 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것의 공급이 존재하는 하나의 시장인 것이다. 이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자율이고 거래량은 대부자금량이다. 정부가 대부시장에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부시장에 개입하여 돈에 대한 사용료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의미다. 만약 정부가 연 20%로 최고 이자율을 설정하면, 돈의 사용료를 원금의 20% 가격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이나 노동시장 등도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이를 표현할 때 가격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자율이나 임금으로 표현하여 일반 상품 가격과 다른 성격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자율은 돈에 대한 사용 가격, 임금은 노동에 대한 사용 가격인 것이다. 이자율도 임금도 결국에는 모두 시장 가격인 셈이다. 다른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임금과 이자율이라는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최고가격제나 최저가격제가 된다. 우리의 금융 당국은 2010년 7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40%에서 44%로 인하였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관련 질문 해설」, 2010

### 가격은 시장신호다!

수요자들이 어떤 상품을 항구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가격은 폭락하고 다시 반등하지 못한다. 이 상품의 생산은 손실만 불러올 것이므로 더 이상 사람들의 생업으로 구실할 수가 없다. 반대로 수요자들이 특정 상품으로 몰리면 가격이 오르므로 그 상품의 생산자들은 이익을 보면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가격은 시장이 각 생업에 보내는 신호(signal)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신호에 따라서 각자 현재의 생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접고 다른 생업을 찾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도 시장신호를 존중한다. 현재의 한정된 소득으로 소비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싼 제품의 소비는 절제하고 품질에 대비하여 가격이 적절한 제품을 골라서 소비해야 한다. 알뜰하게 살림하려는 소비자나 더 많은 이윤을 찾는 기업이나 각자 무엇을 소비하고 생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결정할 뿐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은 가격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장신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상품이 모자라면 그 가격이 오르는데, 값이 오른 상품의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의 폭이 감소한다. 상품이 남아돌면 같은 원리로 과잉의 폭이 줄어든다. 각자 이기적 동기로 생산하고 소비하더라도 가격신호는 상품의 과부족을 사회 스스로 해소하도록 이끌어간다. 자유로운 개별 결정이지만 모두 일사불란하게 공통 신호인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0월호

##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일상의 경제활동에서 두 가지 종류의 손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는 보이는 손, 즉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이다. 문제는 보이는 손의 위력은 두려워하나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기록은 공산주의의 발흥과 멸망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였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손인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지되는 경제체제다. 누가,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를 정부가 총체적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명제다.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대체된다. 시장경제체제란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각각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시장경제체제 소비자와 생산자는 산출물 시장에서든, 생산요소 시장에서든 시장을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한다.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언제 생산하느냐를 결정하며 가계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사고, 얼마나, 어디서, 언제 사느냐를 결정한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 개별적으로 의사결정하며 시장에서 서로 만난다.

얼핏 생각하면 모든 것을 보이는 손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혼돈 없이 척척 진행되고,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잘 해결되고, 국민복리가 최대로 증진되는 반면, 계획이나 전체적인 통제 없이 가계와 기업이라는 수없이 많은 경제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칠 것 같다.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보장된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들의 행동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어 공동선(共同善)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 조화나 질서 또는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언가 보이는 손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통제기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반인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수많은 가게와 기업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기적의 손인 보이지 않는 손의 지배를 받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은 가격기구다. 가격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재화의 사회적 생산비를 반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기적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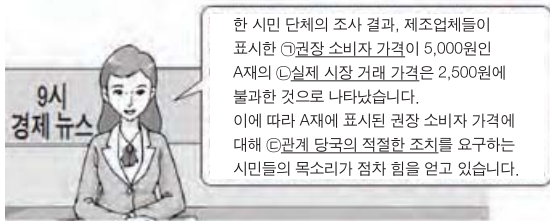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제운영에서 가격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가격기구에 인위적 제약이 가해질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부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정부가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꼭 묶어 놓고, 결점투성이인 보이는 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를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는 어느 생물체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서로 다투면 어느 손이 이길까. 그 답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긴다는 것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여 그 손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이는 손의 피해와 보이지 않는 손의 피해를 비교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피해가 보이는 손의 피해보다 적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2년 12월 26일



1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① ㉠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다.
- ② ㉠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경우 초과 수요가 발행할 것이다.
- ③ ㉡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 ④ ㉡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50% 할인된 수준의 가격이다.
- ⑤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최저 가격제이다.

[정답] 1. ③

##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 개념 11

### 수요와 수요 법칙

**키워드** 수요 · 수요량 · 수요법칙 · 수요곡선 · 수요계획

#### 개념 설명

#### 수요와 수요량

경제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인 **수요**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리상태다. 그러나 수요는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능력까지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의사라는 점에서 재화에 대한 단순한 ‘욕구’나 ‘필요’와는 구별된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격, 소득, 취향(선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최대수량을 수요와 구분하여 **수요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수요량의 역(-)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이다.

#### 수요법칙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세일할 때 평소보다 사람들의 구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가격이 더 싸지면 사려는 수량이 증가하는데, 이를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물론 가격이 더 비싸지면 사려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수요법칙은 성립한다.

수요법칙 : 가격과 수요량의 역(-)관계



## 수요계획표 작성하기

수요법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요계획표를 작성해 보자. 매달 음반을 얼마나 살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일까? 음반의 가격, 소득, 음반과 연관된 재화의 가격(MP3 파일의 가격 등), 소비자의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일정기간에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요법칙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상품을 적게 구입하고자 하고, 가격이 낮을수록 많이 구입하고자 한다.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을 **수요계획(demand schedule)**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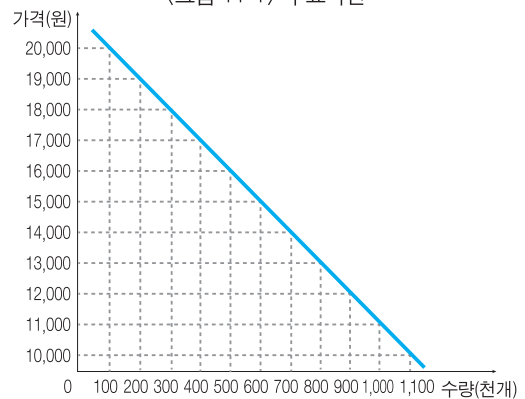
〈표 11-1〉 수요계획

음반가격(원)	한 달간 음반 수요량(개)
20,000	100
19,000	200
18,000	300
17,000	400
16,000	500
15,000	600
14,000	700
13,000	800
12,000	900
11,000	1,000
10,000	1,100

##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그림은 위의 수요계획표에 표시된 수치들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가격은 세로축에, 수요량은 가로축에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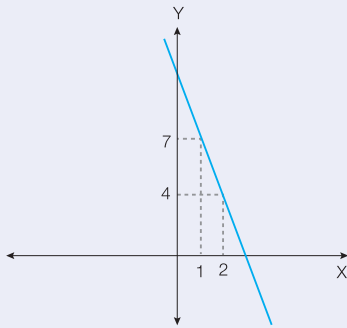
〈그림 11-1〉 수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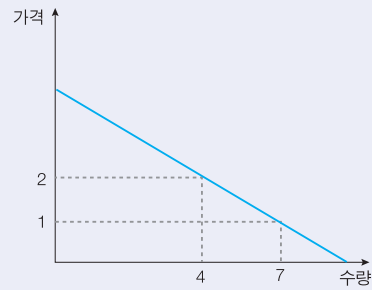


### DP(Dangerous Point) | 경제학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나타내기

〈그림 11-2〉 수학의 그래프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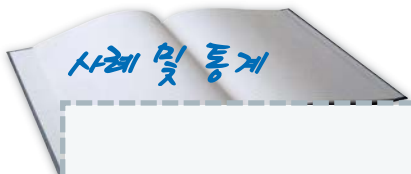


〈그림 11-3〉 경제학의 그래프 표현 방법



수학에서는 가로축인 x(독립변수)축의 값이 변하면 그 결과의 함수값을 y(종속변수)축에 나타낸다.  $y=-3x+10$ 의 일차함수에서 x가 1에서 2로 변하면 y가 7에서 4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이와 반대로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가로축에 그린다. 수요곡선을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Q=-3P+10$ 의 수요곡선에서 가격이 1에서 2로 변하면 수요량이 7에서 4로 변한다. 단, P가 세로축에 위치하도록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식을 가격(P)에 관해 정리해야 한다(  $P = -\frac{1}{3}Q + \frac{10}{3}$  ). 또한 경제학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음수인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사분면에만 그림이 나타난다는 점도 수학의 그래프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펜재, 가수요, 사재기, 베블렌효과가 모두 수요법칙의 예외현상인가요?

**Q :** 수능 참고서를 보면 수요법칙의 예외로 기펜재, 매점, 가수요, 사재기, 베블렌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원론 책에서 기펜재는 언급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만 매점, 가수요, 사재기 등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수요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수요법칙은 가격의 등락과 반대 방향으로 수요량이 증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양자 간에 역방향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펜재는 가격의 등락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요가 결정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훨씬 큰 탓입니다.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반합니다.

매점, 가수요, 사재기는 모두 미래의 상품수요가 현재화된 것입니다. 미래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될 때 현재 미리 구입하고자 하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수요법

칙에 예외라고 보기보다는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편승효과, 백로효과(속물효과)는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더 소비하는 경향을 보일 때, 더 소비하고자 한다거나(편승) 아니면 반대로 덜 소비하고자 하는(백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점, 가수요, 사재기는 미래의 기대가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편승효과와 백로효과는 가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이 재화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법칙의 예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블렌효과는 과시적 욕구로 인해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법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는 수요의 증감에 영향을 준 요인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아닌 과시효과라는 요인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수요법칙과 평면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요법칙의 예외인 기펜재처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수요 변화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펜재는 수요법칙의 예외인 반면, 베블렌 효과는 수요법칙의 예외처럼 보이지만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4월호

## 감세정책과 수요의 법칙

법인세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행위에 효과가 있다. 이론은 간단하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에 대한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즉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투자 가격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가 기업투자에 효과적이었음은 많은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진영에서의 논리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세 부담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 감세정책이 투자가격을 낮추므로,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법칙과 같다. 그러나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세금)이 떨어져 수요(투자)가 늘어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아이스크림 가격이 인하되어도 모든 국민의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수요는 가격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수요를 늘리는 행위를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게 보편적 경제현실이다. 법인세가 인하되어도 노사문제가 현안인 기업의 경우엔 투자행위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법칙이 적용되어 감세정책은 기업투자를 늘리게 된다.

출처 : 조선일보, 2010년 12월 16일

개념 12

수요와 수요량

**키워드** 수요 · 수요량 · 수요법칙 · 수요곡선 · 정상재 · 열등재 · 대체재 · 보완재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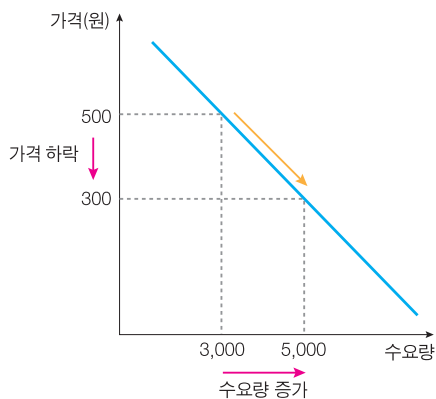
**수요와 수요량**

수요란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소득,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등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최대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며,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 역(-)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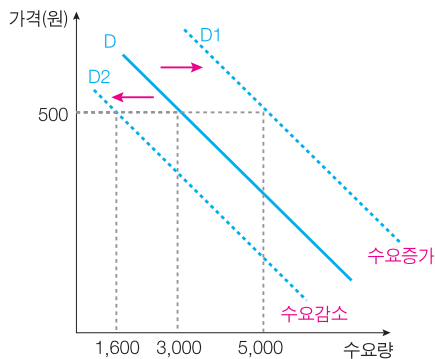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이다 ([개념 10]에서 살펴본 수요계획과 수요곡선 참조). 수요곡선의 그래프에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그림 12-1>).

반면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격은 500원으로 동일한테 사람들이 닭고기를 전보다 더 좋아 한다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우측(D1)으로 이동한다(<그림 12-2>). 만약 조류독감으로 닭고기를 전보다 덜 찾게 된다면 수요곡선은 좌측(D2)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소득 및 관련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수요 또는 수요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분석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림 12-1> 수요량의 변화



<그림 12-2> 수요의 변화



## 소득과 수요

어느 날 직장을 잃는다면 여러분의 외식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소득이 감소하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므로 재화의 구입량을 줄여야 한다. 이같이 소득이 감소(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도 있으며, 이를 **열등재(inferior good)**라고 한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주나 라면, 경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반대의 소비패턴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분할 때 다른 모든 조건(가격, 선호도 등)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정상재의 경우는 수요가 증가(감소)해서 수요곡선이 오른(왼)쪽으로 이동하며, 열등재의 경우는 수요가 감소(증가)해서 수요곡선이 왼(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소득의 변화도 수요곡선을 움직이는 요인이다(<그림 12-2>).

## 관련 재화의 가격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예와 같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substitutes)**라고 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영화와 DVD 등은 서로 용도가 유사한 대체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A재화 수요량이 증가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B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B재화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잉크젯 프린터기 사용에 대한 수요와 잉크카트리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잉크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프린터 사용을 줄일 것이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며,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complements)**라고 한다. 샤프심과 샤프펜슬, 휘발유와 자가용 이용 등이 보완재 관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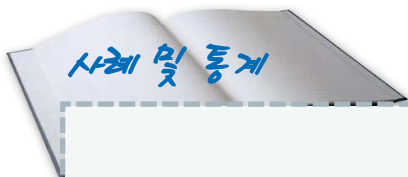
### 기타 다른 요인들

소득과 가격 외에도 선호,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다. 2010년 낙지에 중금속이 포함되었다는 언론보도(이후에 잘못된 보도라고 알려짐) 이후 사람들의 낙지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선호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가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소비자가 미래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가격이 내리고 나서 구매하기 위해 소비를 미루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



#### DP(Dangerous Point) | 열등재와 기펜재의 관계

열등재와 기펜재를 혼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등재 중에 일부가 기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등재라고 해서 모두 기펜재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펜재라면 모두 열등재이어야 한다. 열등재란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말하는 것이며 기펜재는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거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다. 열등재의 구분 기준은 소득의 변화이며, 기펜재는 가격의 변화인 것이다. 그렇지만 기펜재가 되려면 우선 열등재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펜재란 열등재 중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재화를 말하기 때문이다(고교 수준을 넘는 내용 이므로 설명으로 생략. 궁금한 사람은 KDI 경제정보센터가 펴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를 참조).



#### 연탄에 얽힌 경제이야기

과거 못 살던 시절을 회상하거나 저소득층 겨울 봉사활동을 나가면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 연탄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집은 난방용 연료로 연탄을 사용했고, 겨울철이 되면 동네 주택가에 다 태운 연탄을 쌓아놓은 풍경이 가난했던 우리네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질식되어 온 가족이 숨졌다는 슬픈 보도도 겨울철이면 빠지지 않는 뉴스거리였다.

그 옛날 난방용 연료의 대명사였던 연탄의 경제학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재화가 열등재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정상재와 달리 열등재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의미한다. 흔히 예로 많이 드는 것이 버터의 대용품인 마아가린, 햄의 대용품인 소시지 등이다.

이러한 연탄의 열등재로서의 특성은 석탄산업으로 유명했던 강원도 도시들의 쇠락을 가져왔다. 대표적 탄광도시였던 태백시의 경우 1988년에 12만5천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연탄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석탄산업이 몰락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석탄산업이 몰락하자 태백·정선 등 폐광 도시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했다. 자연자원이 매장된 도시답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이 석탄산업의 매력적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가장 큰 수요처인 수도권 인구를 불러 모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모색한 산업이 카지노였다. 외국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서울 유명 호텔의 카지노와 달리, 국내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설립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설립되고 골프장과 숙박시설, 스키장 등이 어우러진 종합 레저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결국 연탄의 열등재적 성격이 강원도의 도시들을 카지노 도시로 만들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셈이다.

연탄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또 있다. 연탄은 저소득층 난방용 연료라는 인식이 강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다. 국내산 석탄은 탄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석탄산업 보호와 극빈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탄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 재원은 유류세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통해 마련되어 왔다. 결국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는 석탄을 연료로 때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흥미로운 점은 민간에서 소비하는 연탄 중에서 57%가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 난방용이 아니라 민간 상업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난방 수요가 많은 온실화훼업자나 요식업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한 셈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11년까지 연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따로 연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자가 아닌 저소득층 연탄 소비자에게만 정부 지원의 편익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8월호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사람은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덜 사려고 할 것이다. 만약 어떤 물건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어떨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전과 유사한 정도의 수량을 살 것이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그 물건을 더 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사는 사람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백화점이 세일할 때를 보면,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시장 전체로 보아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이라고 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수요의 법칙인 것이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이나 소득이 증감하면 수요량도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대답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줄어드는 물건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면 자동차나 고급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사게 된다. 소득이 늘면 늘수록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여행도 더 자주 갈 것이다. 반대로 소득이 늘수록 덜 쓰고 싶은 물건도 있다. 예를 들면, 고무신이나 라면, 막걸리 같은 물건들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물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호품처럼 소득이 늘어도 똑같이 소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이런 물건들은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지난 IMF 위기가 닥칠 당시인 1997년 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다 덜 팔리지는 않았다. 당시에 소주와 라면의 판매는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 또 경차의 판매도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수록 더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열등재’(inferior good)라고 부른다.

또한, 관련 재화의 가격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시원한 콜라를 사려는 생각으로 상점에 갔는데, 콜라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이다의 가격은 그전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콜라를 그대로 마실까, 아니면, 사이다로 바꿀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다는 안 마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사이다 값의 변화가 콜라의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이다를 마시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콜라의 가격은 변화가 없었지만, 연관된 제품인 사이다 값의 변화에 의해 콜라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취향이다. 저마다의 취향에 따라 어떤 물건이 좋아진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나는 아침에 피자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침에 피자를 먹을 것이며, 피자의 수요는 증가한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기대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사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8년 5월호와 6월호 발췌 요약

## 대체관계의 원인과 결과

**Q** : 대체관계에 있는 두 재화 A, B가 있을 때, A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A재화와 대체관계에 있는 B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서 B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으니 B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 A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A재의 가격이 오르면 A재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즉 사람들이 더 적은 A재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소비는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아마도 대체관계인 B재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B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은 B재화의 수요곡선의 우측이동으로 설명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B재화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B재화의 소비가 증가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A재의 소비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학생의 질문은 매우 그럴 듯 하며 경제학을 많이 배운 사람도 자주 혼동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 A재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B재 수요가 증가한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경제학 모형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분석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태적 변화과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매우 어려워 대학원 고급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위 분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교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수준이나 정태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정태적 분석만 시도됩니다. 따라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로 B가 변했다면 분석은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이를 다시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홍어와 막걸리가 보완재?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홍어, 수육, 묵은지 등 막걸리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막걸리와 찰떡궁합인 수육, 묵은지, 도토리묵의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 수육용 돼지고기의 경우 통상 추석 전후에는 판매가 주춤하지만 최근 막걸리 인기에 힘입어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했다. 또 이달 들어 묵은지 김치 전문코너 매출은 33%, 메밀·감자·녹두·밤 부침가루와 도토리묵 매출도 45% 늘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서울경제 2009년 10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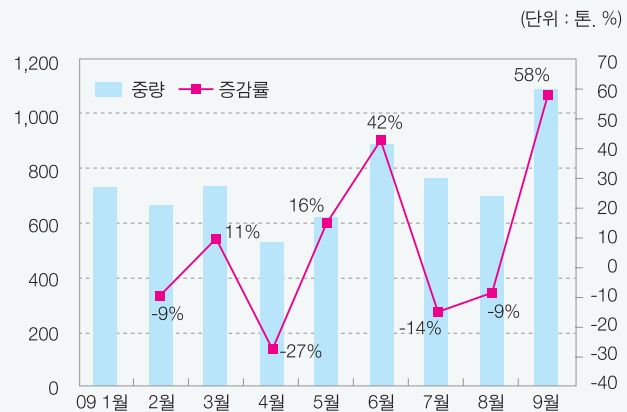
홍어는 홍어목 가오리과의 바닷물고기이다. 생긴 것은 가오리와 비슷하고 징그러워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고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어를 삭혀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먼 옛날 뚝단배를 타고 오가던 시절에 흑산도 주변에서 잡히는 생선은 육지의 어시장까지 가져오다가 상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개중에는 상하였어도 먹어서 배탈이 안 나는 생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홍어였다고 한다. 삭힌 홍어는 '나주(羅州)인들은 삭힌 홍어를 즐겨먹는데, 탁주 안주로 곁들여 먹는다.'라고 조선 후기의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홍어는 특별한 상품으로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해 가격이 높아 다른 나라에서 홍어를 수입하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홍어를 수입했었지만, 우리나라 홍어 특유의 삭힌 맛이 안 난다고 해서 칠레와의 FTA협정 체결 후 관세 편익을 볼 수 있는 칠레산 홍어가 대량으로 수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칠레산 홍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2006년부터 아르헨티나 홍어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2009년 9월 중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홍어는 아르헨티나

(34.8%), 칠레(23.4%), 우루과이(14.2%)순으로, 수입 홍어 3마리 중 한 마리는 아르헨티나산인 셈이다.

홍어 특유의 삭힌 냄새로 몇 년째 줄어 들던 홍어 수입량이 올 들어 갑자기 늘고 있다(그림 12-3 참고). 이렇게 최근 홍어의 소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관세청은 '막걸리가 선풍적인 인기

〈그림 12-3〉 홍어 수입 현황



자료 : 관세청

를 끌면서' 라고 밝히고 있다. 막걸리 안주에 홍어가 제격이라 막걸리 수요 증가가 홍어의 수입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같이 소비하면 만족이 증가하는 상품을 보완재(complement good)라고 하고 그 관계를 보완관계라고 한다.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막걸리의 보완재인 홍어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 것이다. 9월까지의 국내산 홍어의 어획량도 이미 지난해 연간 어획량의 두 배가 넘는 홍어 풍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홍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보완재의 예로 커피와 설탕, 연필과 지우개, 자장면과 단무지 등이 자주 인용되었지만, 이제는 홍어와 막걸리가 새로운 보완재의 예로 등장한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월호

실력테스트

1 다음의 (가), (나)는 A~C재 사이에 존재하는 대체재 또는 보완재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기초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A재의 생산 기술이 진보하자 B재의 수요가 감소했고, B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자 A재의 수요가 감소했다.  
 (나) C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B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보 기>

- ㄱ. (가)에서 A재의 가격 변화와 B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다.
- ㄴ.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 ㄷ. (나)에서 C재의 가격 변화와 B재의 수요 변화는 역(-)의 관계에 있다.
- ㄹ. C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A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식빵과 딸기잼은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다. 시장 변화 (가), (나)를 초래한 원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	딸기잼 시장은 균형 가격 상승 식빵 시장의 균형 거래량 증가
(나)	딸기잼 시장의 균형 가격 상승 식빵 시장의 균형 거래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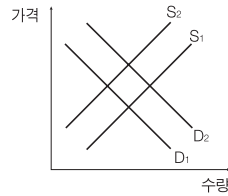
(가)의 원인

(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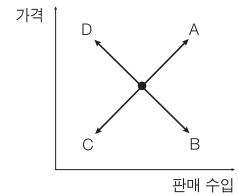
- ① 딸기 가격 상승      밀가루 가격 하락
- ② 딸기 가격 하락      밀가루 가격 상승
- ③ 딸기 가격 하락      밀가루 가격 하락
- ④ 밀가루 가격 상승    딸기 가격 하락
- ⑤ 밀가루 가격 하락    딸기 가격 상승

3 다음 자료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옳은 추론을 그림 (가), (나)에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X재와 Y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X재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한 정부 조치가 Y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가) Y재의 수요·공급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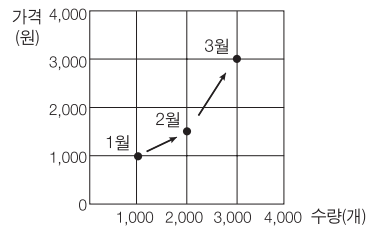


(나) Y재의 가격과 판매 수입

(가)      (나)

- ①  $D_1 \rightarrow D_2$      $E \rightarrow B$       ②  $D_1 \rightarrow D_2$      $E \rightarrow C$
- ③  $D_1 \rightarrow D_2$      $E \rightarrow D$       ④  $S_1 \rightarrow S_2$      $E \rightarrow A$
- ⑤  $S_1 \rightarrow S_2$      $E \rightarrow D$

4 그림은 어느 기업이 생산한 정상재의 시장 가격과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보 기>

-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졌다.
- ㄴ. 광고 마케팅으로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 ㄷ.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 ㄹ. 지금난에 직면한 경쟁 회사가 가격을 대폭 할인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경제신문 2009년 ○월 ○일

**유가 급락에 전통 바이오 연료 업계 고사**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 기업들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지난 해 이들 업체들은 초고유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이용하여 해조류 등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종의 고통을 겪고 있다.

- ① 신기술 개발은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 ②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 에탄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③ 원유의 수요 변화와 에탄올 가격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다.
- ④ 에탄올 수요 감소로 인해 옥수수의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 ⑤ 원유 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 원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한다.

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갑국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담배 값 인상 정책이다. 가격이 오르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금연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정책이다. 흡연의 피해를 홍보하여 흡연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담배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삭감 정책이다. 원료인 담배 잎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 기>

- ㄱ. ㉠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서 담배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가 크다.
- ㄴ. ㉡의 경우 담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담배 판매액은 증가한다.
- ㄷ. 담배 수요가 가격에 완전비탄력적이라면, ㉢으로 인해 담배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ㄹ. ㉢은 수요 곡선상의 움직임으로, ㉡은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② 2. ⑤ 3. ② 4. ③ 5. ③ 6. ②

## 개념 13

## 공급과 공급량

**키워드** 공급 · 공급량 · 공급법칙 · 공급계획 · 공급곡선

### 개념설명

#### 공급과 공급법칙

공급이란 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실행에 옮기게 될 구체적인 생산 의사를 말한다.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에게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덜 생산할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에서 일정기간 생산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공급과 구별해서 **공급량**이라고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량의 정(+)관계를 **공급법칙**(law of supply)이라고 하며, 이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공급곡선**이다.

#### 공급계획표 작성하기

공급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공급계획표를 작성해 보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일정기간에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상품을 많이 생산할 것이고, 가격이 낮을수록 적게 생산할 것이다.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을 **공급계획**(supply schedule)이라고 한다. 다음은 공급계획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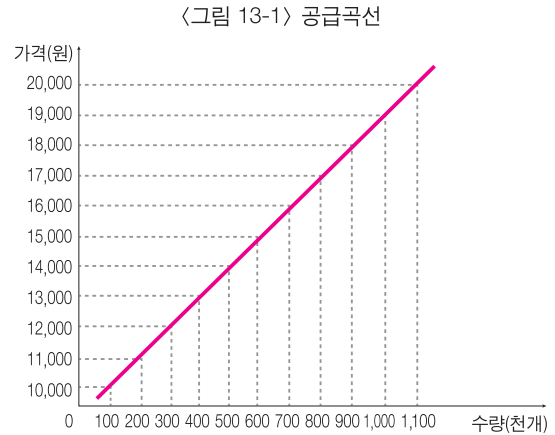
〈표 13-1〉 공급계획

음반가격(원)	한 달간 음반 수요량(개)
10,000	100
11,000	200
12,000	300
13,000	400
14,000	500
15,000	600
16,000	700
17,000	800
18,000	900
19,000	1,000
20,000	1,100



###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그림 13-1〉은 〈표 13-1〉에 나타난 수치들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음반 가격은 세로축에, 음반 공급량은 가로축에 표기되어 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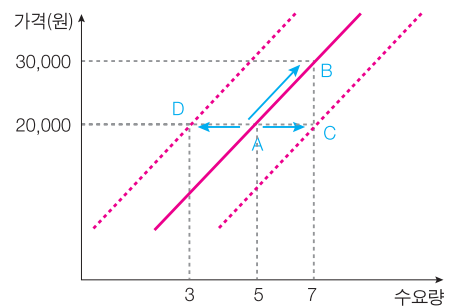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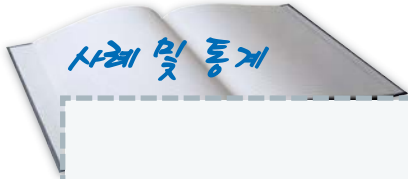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가격 변화로 인한 공급량의 변화는 주어진 공급곡선상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그림 13-2〉에서 보듯이 상품의 가격이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라가면 공급량은 5개에서 7개로 증가한다. 이것은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위의 A점에서 B점으로 변화다.

반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이 변하는 경우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술이 발달하거나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다. 이는 공급 곡선의 우측이동(A→C)으로 나타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20,000원일 때의 공급량은 7개(C점)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유가 등 요소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는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A→D)으로 나타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20,000원일 때의 공급량은 3개(D점)로 줄어든다. 이처럼 공급량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변하고, 공급은 투입 요소의 가격, 기술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도 공급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에도 영향을 받는다(사례 및 통계 참조).

〈그림 13-2〉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 매점매석이 공급법칙의 예외적 현상?

**Q** : 공급법칙의 예외에는 매석과 노동공급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A** : 매점(買占)이란 가격이 오를 때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몰아 사두는 것을 말하며, 매석(賣惜)이란 공급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때 판매를 하기 위해 물건 팔기를 꺼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고전소설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이 전국의 과일을 한꺼번에 사들인 후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판매를 하여 폭리를 취한 일은 매점매석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매석행위를 공급법칙의 예외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석은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공급의 법칙이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격이 높으면 공급자는 상품을 많이 공급하려 하고, 가격이 낮으면 상품을 적게 공급하려 합니다. 공급의 법칙의 정의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상품가격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만약 가격 외에 다른 변수가 공

〈표 13-2〉 가격 상승 예상시 공급량의 변화

가격 (원)	원래의 공급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할 때의 공급량
100	10	5
200	20	10
300	30	15
400	40	20
500	50	25
600	60	30
700	70	35
800	80	40
900	90	45
1,000	100	50

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가격 이외의 변수입니다. 원래 가격이 1,000원일 때 상품 100개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면 미래에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입니다. 즉, 현재 가격이 1,000원이어도 상품을 50개만 공급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법칙의 예외란 가격과 공급량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매석행위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모든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여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공급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공급에 있어서는 공급법칙의 예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금 상승의 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임금의 상승은 여가에 쓰는 시간의 기회비용

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시간당 5,000원을 받던 사람이 시간당 10,000원을 받게 된다면 한 시간을 여가로 사용할 때 예전보다 2배나 더 많은 소득을 희생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진 것을 덜 소비하게 만드는 대체효과는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임금의 상승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전보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가(정상재)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급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노동공급곡선은 좌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7월호

### 공급계획표의 실제 사례

존 오웬스(John Owens)는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맨체스터 출생의 영국 상인이다.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동업을 하면서 무역에 뛰어들게 된 그는 뛰어난 수완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오웬스의 회사는 중국, 인도, 미국, 남아메리카 등지를 대상으로 목화, 차, 밀 등 다양한 품목을 활발히 교역하였다. 오웬스는 교역을 하는 여러 품목들의 품질을 자신이 스스로 정확히 감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전문가인 대리인들에게 상품을 사고 파는 일을 위임하였다. 거래를 위임하기는 했지만 그는 대리인들이 자신의 지침 아래 명확히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의 상품을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1839년에 그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차를 판매하는 대리인에게 ‘가격이 2실링 10펜스일 때는 50상자를 팔고, 3실링일 때는 100상자를 팔아 달라’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모든 가격수준에서의 공급량을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정리한 그의 지침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공급표와 일맥상통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0년 5월 31일

### 인도 타타車, 세계최저가 ‘나노’ 가격인상

인도 타타 모터스가 세계 최저가 승용차인 ‘나노’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타타 모터스 대변인은 생산비용 급증으로 나노의 가격을 3~4% 인상해야 한다며 “원자재 값 상승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은 얼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인도 내 자동차 회사들은 철과 고무 등의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그러나 타타 모터스는 2008년 나노를 처음 공개할 때 약속한 대로 선착순 10만 명에게는 인상 전 가격인 12만3천 루피(2천629 달러)에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생산시설 이전 문제로 지금까지 나노를 4만5천 대 공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타타 모터스는 당초 계획했던 웨스트벵갈주의 공장 건설이 주민과 일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되면서 나노의 생산시설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옮겨야 했다. 타타 모터스의 대변인은 이날 구자라트주 나노공장 건설이 14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공장 가동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나노 생산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또 밀린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우타라칸드주 북부공장에서도 나노를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저 가격표를 달고 출시된 나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인도 중산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인도와 다른 신흥시장을 겨냥한 저가 자동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10년 7월 17일

실력테스트

1 A기업의 원유 공급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기업은 총 3개의 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광구별 배럴당 생산 비용과 1일 최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럴당 생산 비용	1일 최대 생산량
1광구	40달러	50만 배럴
2광구	50달러	20만 배럴
3광구	60달러	30만 배럴

\* 원유 공급에서 생산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량이 0인 경우 생산 비용은 0이다.  
\*\* 원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① 시장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면 1광구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진다.
- ② 시장 가격이 배럴당 55달러면 A기업 원유의 1일 총 공급량은 20만 배럴이다.
- ③ 시장 가격이 배럴당 55달러에서 65달러로 상승하면 A기업 원유의 1일 총 공급량은 30만 배럴 증가한다.
- ④ A기업 원유의 1일 총 공급량이 70만 배럴일 때의 시장 가격은 50달러 미만이다.
- ⑤ 시장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3광구, 2광구, 1광구의 순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2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표는 A기업과 B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배출량과 그에 따른 상품 생산 비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오염 물질 4톤을 배출할 경우 상품 생산 비용이 50만원이 들지만, 3톤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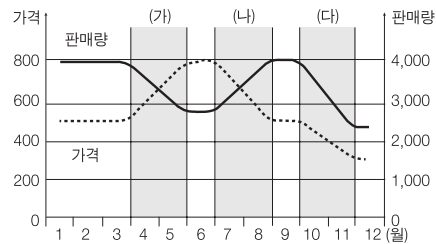
구분	오염 물질 배출량			
	4톤	3톤	2톤	1톤
상품 A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생산비용 B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단, 각 기업의 1일 상품 생산량은 동일하며 오염세는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두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량 합계를 현재의 8톤에서 4톤으로 줄이고자 다음 두가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 (가) 각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다.  
(나) 오염 물질 1톤당 일정 금액의 오염세를 부과한다.

- ①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두 기업의 상품 생산 비용 합계는 하루 200만원이다.
- ② A기업이 오염 물질 배출량을 3톤에서 2톤으로 줄일 경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상품 생산 비용은 하루 150만원이다.
- ③ 오염 물질 1톤당 60만원의 오염세가 부과될 경우, 정책 목표가 달성된다.
- ④ (가)에 의해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경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상품 생산 비용은 A기업이 B기업보다 더 크다.
- ⑤ (나)에 의해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오염 물질 배출 감소량은 A기업이 B기업보다 더 많다.

3 그림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A국의 월별 국내 석유 가격과 국내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① (가) 기간 : A국 통화 가치 상승
- ② (가) 기간 : 국내 석유 판매 기업 간 담합 형성
- ③ (나) 기간 : 산유국이 석유 증산
- ④ (다) 기간 :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발생
- ⑤ (다) 기간 : 석유 대체 연료 개발 및 유통

[정답] 1. ㉓ 2. ㉕ 3. ㉑

## 개념 14

## 균형가격의 결정

**키워드** 균형 · 균형수량 · 균형가격 · 시장균형가격 · 초과수요 · 초과공급

### 개념설명

#### 균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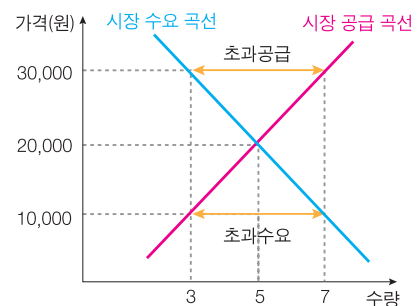
상반된 여러 힘이 서로 상쇄되어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른다.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에서 사려는 힘인 수요량과 팔려는 힘인 공급량이 같아져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서 결정된 상태가 균형이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되는 점이다. **균형가격**에서는 ‘수요자 지불 의사 가격 = 공급자 생산 의사 가격’이 성립하고, **균형수량**(거래량)에서는 ‘수요량 = 공급량’이 성립한다.

#### 시장균형가격의 결정 과정

음반시장은 음반에 대한 개별수요자와 개별공급자의 의사가 합쳐진 곳이다. 이들이 시장에서 만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다음 그림은 앞의 [개념 12]와 [개념 13]에서 보았던 수요 · 공급곡선을 동시에 그린 것이다.

음반 가격이 3만 원일 때는 사려는 수량은 3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7개 이다. 이와 같이 특정 가격수준에서 사려는 수량보다 팔려는 수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공급**이라고 한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3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한다. 만약 가격이 1만 원이라면 사려는 수량은 7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3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려는 수량보다 팔려는 수량이 적은 상태를 **초과수요**라고 한다.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 이처럼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균형이 아니다.

〈그림 14-1〉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수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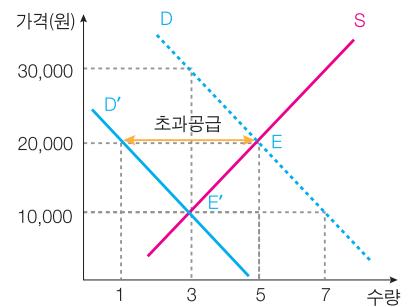
가격이 2만 원이라면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이 모두 5개로 동일하다. 따라서 2만 원의 가격에서 '수요량=공급량=5개'가 성립하고 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2만 원이고 균형거래량은 5개가 된다. 이런 조정은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스스로 조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신호등에 비유하는 것이다.

### 균형의 이탈과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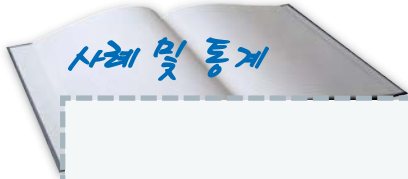
시장에 외부적 힘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난 시장은 가격 신호등에 의해 스스로 다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도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림 14-2〉에서 보듯이 현재 균형가격(E점)은 2만 원이고 균형 수량은 5개였다. 이때 MP3 파일의 다운로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식이 음반시장에 전해졌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음반과 MP3파일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음반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곡선은 좌측(D→D')으로 이동한다. 시장수요의 감소는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문화비 지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음반(정상재) 구입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한 사람들이 음반을 구입하려는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어떠한 것이 원인인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요를 감소시키면 수요곡선이 〈그림 14-2〉와 같이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림 14-2〉 수요의 감소



이때 가격이 여전히 2만 원이라면 사려는 힘은 최초 균형인 E점의 5개에서 1개로 줄지만, 팔려는 힘은 여전히 5개이다. 즉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초과공급으로 수요자는 3개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공급자는 3개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성립한다. 따라서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E'에서 결정된다. 이때 균형가격은 1만 원, 균형수량은 3개이다. 새로운 균형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없다면 시장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 신종플루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최대 2조6천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23일 제기됐다. 세계은행(WB)의 전문가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손실액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4.8%가 될 것이라고 최근 예측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연합뉴스 2009년 8월 23일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경제 현상이다. 어떤 국가가 전쟁을 벌이면 재정지출 확대에 관심이 가고, 누군가 자원봉사를 하면 생산활동이 계산되지 않는 GDP의 한계를 떠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염병의 유행에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당연한 인식과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실증된 사례가 있다. 아마 가장 극적인 사건은 중세 말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일 것이다.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0~35% 사망할 정도로 대유행을 한 전염병으로, 노동집약적 중세 봉건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페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은 위생환경도 잘 되어 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상황이라 신종플루가 페스트와 같은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감의 경우 전 인구의 30% 정도를 감염시키고 나서야 잦아든다는 기존 의학 통계를 살펴볼 때, 신종플루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강할 수도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영향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등 관련 의료기기의 판매량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관련 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신종플루의 유행이라는 외생변수로 인한 수요곡선의 급격한 우측 이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가격의 공급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요의 증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나타난 수요 증가는 그 정도가 상당히 커서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급하는 판매점에는 품절사례가 만연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사람이 운집해 이뤄지는 서비스산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전시산업, 축제, 스포츠나 영화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낮아져 이런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에서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로야구의 경우 5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극장에서는 1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한국 영화가 나오



는 등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신종플루의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미약한 신종플루의 영향력을 상쇄하였다고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만약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 이런 변수는 또 다른 조정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직접적 변수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변수에 더 주목한다. 만약 신종플루가 현 단계를 넘어서 대유행으로 번지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종플루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영국의 경우 1.5%의 GDP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아직 신종플루 감염 피해가 크지 않은 중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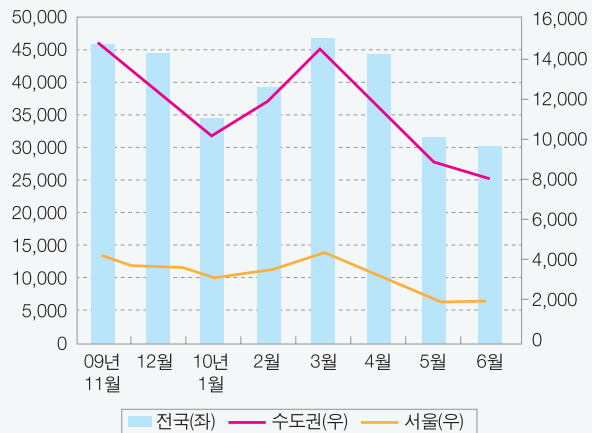
아직까지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차분한 자세로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악영향은 그리 심각한 실정은 아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과도한 두려움은 질병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도 이상으로 과하게 만들 수 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결론을 내린다면,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가능하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10월호

### 주택가격의 변동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그림)에 따르면 2010년 6월 전국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 454건이고, 수도권은 7,969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4년 평균 6월 거래량으로 보면 전국은 28.9%(42,847건), 수도권은 60.7%(20,254건)나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2,051건으로 평년의 35%수준이다. 이와 같은 집값 하락에 따른 아파트 거래량의 감소는 주택 거래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주택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다.

〈그림 14-3〉 아파트 월별 거래건수



최근 10여 년간의 주택 가격 변동 요인을 보면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가 닥쳤고, 2004년은 2003년에 시행한 10·29 부동산 규제로 1년 동안 침체기를 겪었으며,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침체기를 겪었다. 이러한 변동 때는 원인이 치유되거나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면 곧바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거래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200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했던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고, 정부가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보금자리 주택 추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공급량은 넘치는데 반해,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인한 대출 규제, 보금자리 주택 대기 물량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 심리의 위축과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25%로 고수하자 매수세가 더욱 감소한데다, 더블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제 경기 흐름까지 겹쳐 수요가 급감하여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9월호

## 에너지 문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원리다. 어떤 물품이 과잉 생산되어 수요를 능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수요가 왕성할 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 미 의회와 선의를 가진 환경보호주의자들, 정부의 각종 규제당국, 다양한 맬서스주의자들은 이 간단하고 근본적인 규칙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휘발유는 갤런당(약 3.8리터) 4달러에 도달했다.

미국과 세계 경제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20년 후 에너지 수요는 2005년 사용량보다 대략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추가로 석유탐사와 정유시설 건설을 장려할 경우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안전하고 청정한 연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석유다. 갈수록 올라가는 석유가격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 상의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새 유전 개발’을 제안한 경제학자 로버트 J 새뮤얼슨의 견해에 필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의 제안은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망이 불투명한 에너지 논쟁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다.

새뮤얼슨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예상치 않은 수요 급증이나 공급에 대한 위협이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 세계적인 공급과 수요*

**의 균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의 국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미국이 세계 3위의 산유국이란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다음이 미국이다. 미국은 석유를 대량생산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여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와 대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서양, 태평양, 멕시코만에서 추가 시추를 금지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생산 증가를 막고 있다. 알래스카의 북극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유전을 개발할 경우 미국 수요량의 5%를 충당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석유회사들과 그들의 수입에 대한 정치적 단건을 극복해야 한다. 석유 탐사와 시추에는 거액의 자본이 들어간다.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1992년 이후 탐사와 생산, 정유 및 배급에 1조2,5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늘릴 방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직면하여 공급을 줄이는 일만 해왔다. 민주당은 추가 유전개발을 거부하고 그들이 말하는 ‘과잉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석유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자고 주장한다. 그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급을 위축시켜 유가 인상을 부채질한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새 정유소의 건설을 중단해 왔으며, 이로 인해 휘발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다. 멕시코만에 폭풍이 불어 몇 개의 해저 유전이 조업을 중단할 가능성만 생겨도 공급이 제한된 유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3의 값싼 에너지가 있다. 그것은 원자력발전이다. 이 분야에서도 민주당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영합하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에 갖가지 장애를 만들고 있다.

프랑스는 필요한 전기의 대부분을 원자력으로 발전한다.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미국 핵에너지연구소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104개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 전기부문의 전력 54%를 생산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미 의회가 무지하고 무능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미국인들은 불필요하게 비싼 석유와 천연가스에 돈을 탕진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소비자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로버트 새뮤얼슨은 “새 유전을 개발하라”는 강력한 선거구호를 공화당에 제시했다. <도널드 램브로 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출처 : 세계일보, 2008년 6월 3일

## 이거 수요곡선 맞아?

‘뇌착각’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의 수요곡선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최근 닭고기 소

비량과 가격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찾아냈다. 그러나 <표 14-1>만 가지고 수요곡선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착각씨는 가격과 소비량 관계를 점으로 찍어 그래프로 나타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그려보니 <그림 14-4>과 같이 나타나자, 뇌착각씨는 닭고기 수요가 대체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였고 이것은 바로 수요법칙의 예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맞는 이야기일까?

수요곡선이란 가격이 변할 때, 이에 따른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이 우하향하는 것을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의 <그림 14-4>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뇌착각’ 씨가 이를 수요곡선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서 결코 수요곡선이 아니다.

우선, 수요량이나 수요곡선은 사전(事前)적인 개념이다. 즉 현실에서 실제 구매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구매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림 14-4>는 구매의사가 아닌 실제 구매되어 실현된 소비량이다. 다음으로 수요곡선은 가격이외 다른 요인이 모두 동일할 때 순수하게 가격과 수요량의 사전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위 점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여러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움직이고 그러한 결과로 균형이 실현된 사후적 결과를 모아놓은 점이다.

이 2가지 측면에서 보면 ‘뇌착각’ 씨가 관찰한 <그림 14-4>의 점들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실현된 균형 소비량을 나타낸 점이지 수요곡선 혼자 만들어낸 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수요곡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커다란 착각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 14-4>에서 수요법칙의 예외처럼 보인 A구간도 설명할 수 있다. A구간의 두 점은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이 아니라 각 년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구간만 따로 그리면 <그림 14-5>와 같다.

이제 <그림 14-5>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경제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닭고기를 더 좋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대체재인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가격상승이 닭고기 수요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양계업자가 증가했거나 닭의 사육기술력이 진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공급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이중 실제로 어떤 요인이 수요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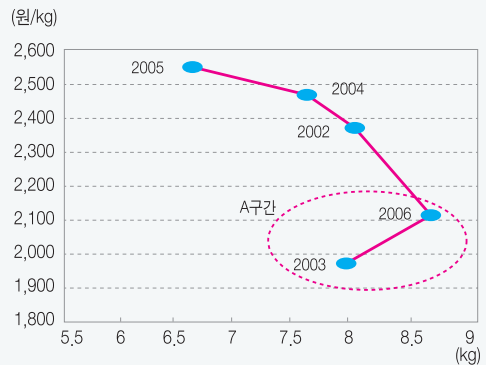
<표 14-1> 닭고기 소비량과 가격

(단위 : kg, 원/kg)

연도	1인당 닭고기 (kg)	닭고기 가격 (원/kg)
2002	8	2,368
2003	7.9	1,973
2004	6.6	2,549
2005	7.58	2,469
2006	8.63	2,115

주 :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를 이용하여 실질가격으로 변환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그림 14-4> 닭고기 가격과 1인당 소비량과의 관계



급을 위와 같이 이동시켰는가 위 상황들을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결국 정확한 수요곡선을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뇌착각' 씨가 어떤 착각을 범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는 있을 것이다.

앞의 설명 보다 더 그럴듯한 경제학적 해석을 해보자. 독자는 2003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은 닭이 폐사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우선 닭의 폐사로 공급은 크게 감소했을 것이다. 이것은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크게 이동시킬 것이다. 반면 수요는 어떻게 되었을까? 조류인플루엔자 출현당시 이를 걱정한 사람들이 닭고기 소비를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형 중 극히 일부만 사람에게 감염되며 감염경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또는 그 배설물로 오염된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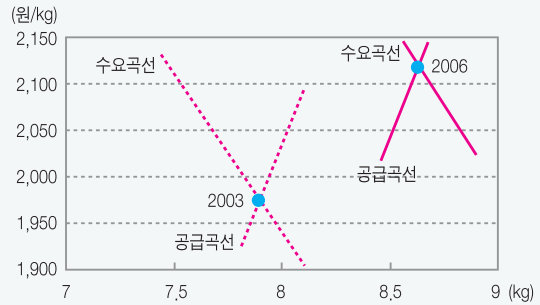
것이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C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먹어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요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게 발생했고 닭의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소비량도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그럴듯한 분석은 <그림 14-6>에 나타나 있다.

1995년 D램의 수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여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1996년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D램 가격은 폭락하여 생산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사례에서 보듯이 수요곡선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알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설문지를 돌리거나 경제성장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혹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가격, 소득, 선호 등)의 과거 자료를 모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수요곡선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정보에 의한 예측이란 것이 늘 그러하듯 아무리 노력해도 확률적으로 빗나간다.

이처럼 수요곡선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뇌착각씨가 관찰한 점들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관찰하는 것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 분석처럼 두 곡선을 그리고 그럴싸한 경제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8년 2월호

<그림 14-5> 수요와 공급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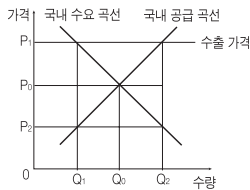
<그림 14-6>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



실력테스트

1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내에서만 생산·소비되던 막걸리에 대해 갑자기 이웃 나라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공급은 증가하지 못한 단기적 시장 상황이 나타났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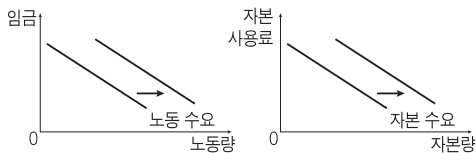
- ㄱ. 국내 시장에서  $Q_1$   $Q_0$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ㄴ. 이웃 나라로 수출되는 막걸리의 양은  $Q_1$   $Q_2$ 이다.
- ㄷ. 국내 시장가격과 수출 가격은 모두  $P_0$ 로 동일하다.
- ㄹ. 국내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무역으로 이득을 얻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서 노동 및 자본의 공급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국 경제에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노동 및 자본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노동 수요는 자본 거래량과, 자본 수요는 노동 거래량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자본 거래량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자본 거래량이 감소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

(자본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노동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 ① 해외에서 노동자가 유입되면 임금과 자본 사용료는 하락한다.

- ② 은퇴자가 증가하면 임금은 하락하고 자본 사용료는 상승한다.
- ③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④ 지진으로 자본이 일부 파괴되면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 ⑤ 해외에서 노동자가 유입되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 임금과 자본 사용료는 상승한다.

3 표는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지난 4개월간의 영업 실적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구분 \ 월	6월	7월	8월	9월
판매 가격 (천 원)	4	5	6	7
판매량 (천 개)	13	15	15	14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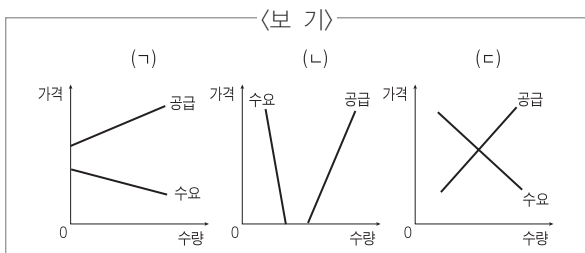
- ㄱ. 6월부터 7월까지의 변화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ㄴ. 7월부터 8월까지의 변화는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비 상승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ㄷ. 8월에 비해 9월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
- ㄹ. 8월부터 9월까지의 변화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생산비가 절감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자료 (가), (나)의 밑줄 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OO회사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약은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혀 이용되지 못했다.

(나) △△사는 지붕이 높은 소형차를 개발했다. 이 차는 지붕이 높아서 머리에 터번을 쓰는 국가에서는 승차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정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출시된 가격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ㄱ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ㄴ	ㄴ
⑤	ㄴ	ㄷ			

5 (가) ~ (라)가 미니밴과 SUV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미니밴과 SUV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차종이며 미니밴은 휘발유를 SUV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가) SUV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  
 (나) 미니밴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생산비용이 하락했다.  
 (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율이 낮아졌다.  
 (라) 경유에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이 높아졌다.

- ① (가)의 결과 SUV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② (나)의 결과 SUV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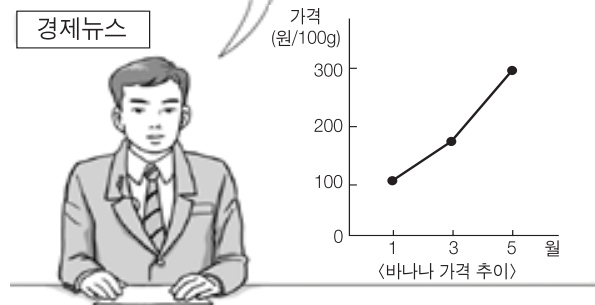
③ (다)의 결과 미니밴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가)와 (라)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SUV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나)와 (다)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미니밴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6 다음 뉴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러한 가격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바나나의 주요 생산지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했으며, 국산 과일 역시 이상 기온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① 국산 과일의 가격은 하락하였다.
- ② 바나나의 국내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 ③ 바나나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다.
- ④ 바나나 가격의 상승은 국산 과일의 수요 감소 요인이었다.
- ⑤ 국산 과일의 공급 감소는 바나나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다.

7 표는 공급의 변화에 따른 A재의 월별 거래량과 판매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구분	1월	2월	3월
거래량(개)	500	700	400
판매액(만 원)	2,500	2,800	2,400

〈보 기〉

- ㄱ. A재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 ㄴ. 1~2월 사이의 변화는 A재의 보완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 ㄷ. 2~3월 사이의 변화는 A재의 대체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 ㄹ. 2~3월 사이의 변화는 A재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학생들의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한 탐구 수업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 기간 동안의 시장 변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일 시장 조사 결과〉

상품명		2009년 3월	2009년 4월
한라봉	판매량	1,000kg	1,500kg
	가격(kg당)	8,000원	8,000원
수입오렌지	판매량	800kg	600kg
	가격(kg당)	5,000원	7,000원

- ① 갑 : 한라봉의 공급은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② 을 : 수입 오렌지의 공급이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③ 병 :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나타난 변화입니다.
- ④ 정 : 한라봉과 수입 오렌지는 보완재의 관계에 있

습니다.

- ⑤ 무 : 수입 오렌지 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① 5. ④ 6. ⑤ 7. ③ 8. ①



## 개념 15

## 가격규제

**키워드** 시장균형가격 · 가격상한제 · 최고가격제 · 할당 · 선착순 · 암시장 · 가격하한제 · 최저가격제

## 개념 설명

### 🌱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정부의 개입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이다. 이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를 “**시장균형가격**” 이라고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한다. 수요측면에서 가격은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급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신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걱정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종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 🌱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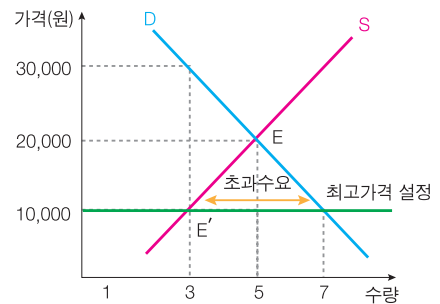
만일,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최고가격제**’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최고가격제의 예가 된다. 최고이자

율을 정하는 것도 최고가격제의 사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게 되면 정부가 대부시장에 개입하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연 20%로 최고 이자를 정하면 돈의 사용료를 원금의 20%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거래가 된다. 우리 금융 당국은 2010년 7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고, 재화의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옆 그림은 균형가격이 2만 원인데 정부가 최고가격을 1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이다. 1만 원에서 생산자는 3개만 생산하려고 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은 7개나 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이 3개만 있는 경우 소비자는 최대 3만 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수요가 해소되지만, 지금은 최고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1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5-1〉 최고가격의 사례



### ✿ 할당에 의한 배분

이때 재화의 부족을 가격이 아닌 할당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만 원의 가격에서 사려는 수량은 7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3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먼저 온 3사람(1인 1개로 한정할 경우)에게 재화를 분배한다. 이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추가로 소비하게 된다. 실제로 1974년 OPEC이 원유 수출량을 크게 감소시키자 제1차 에너지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이 휘발유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한 바 있었다. 결과는 미국 각지 주유소에 긴 대기행렬을 만들었고,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줄을 서주는 직업이 생겨났다.

### ✿ 암시장 출현

정부가 가격을 1만 원으로 규제한 상태에서 재화가 부족하자, 3만 원을 지불하고자 하는 A가 1만 원에 재화를 구매한 B에게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건다.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파시오. 2만

원을 지불하겠소.” 운 좋게 재화를 1만 원에 구입한 B는 1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재화를 얻지 못했지만 3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A도 1만 원의 추가 이익이 생겼다. 심지어 3만 원에 재판매 된다고 하더라도 구입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최고가격제도를 어기는 불법행위가 된다.

### 암시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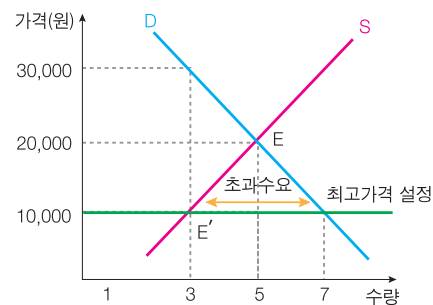
넓은 의미로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키며,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천재지변·전쟁 기타 여러 원인으로 물자가 크게 부족할 때, 특정물자의 생산·판매 가격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금지품목이 판매되고 통제물자가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그러한 거래가 행하여지는 비합법적인 시장이 좁은 뜻의 암시장이다.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속어로, 한국에서는 50년대에 들어와 미국 화폐를 사고파는 암달러상, 미국·일본 제품 등 각종 외제 상품을 사고파는 암거래가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극성을 부렸다.

## ❁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제에서 초과공급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가격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공급 역시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노동공급량에 비해 노동수요량이 적다. 따라서 많은 노동공급자 중에서 누구를 선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모든 노동자의 질이 같다고 하면, 선착순이나 제비뽑기와 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 취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순번제를 통해 서로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취업하는 계약에 합의할 수도 있다.

〈그림 15-1〉 최고가격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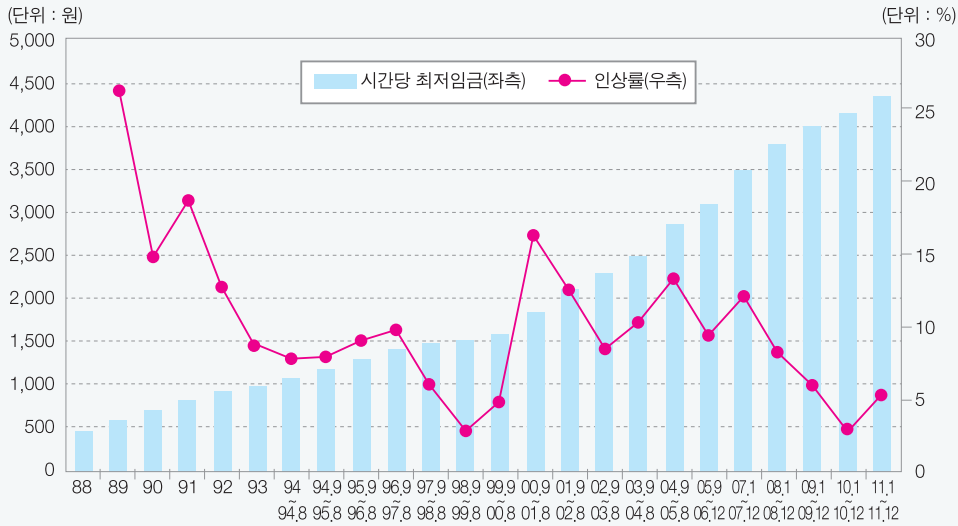
### DP(Dangerous Point) | 실효성없는 가격규제 정책은?

최고가가격제도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 반면 최저가격제도는 시장 균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다. 만약 최저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거래는 시장의 균형 가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제도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최고가격제도가나 최저가격제도가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해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것이다.



### 최저임금

〈그림 15-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는 본래 시장균형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의미 있는데,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으나, 최저임금법은 1986년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됐으며, 당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75원이었다.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와 더불어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2001년 9월 이후에는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교수, 전문가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1989~20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11.2%이며, 2011년에는 5.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초 2011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놓고 근로자위원은 전년에 비해 26.0% 인상한 시간당 5,180원을, 사용자위원은 2010년과 동일한 4,110원을 제시했다. 결국 2011년도 최저임금은 조정을 통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560원이다. 한 달에 25일을 가정하면 월급은 약 86만 원이고, 휴일수당을 받는다면 약 100만 원가량이 된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1월호

## 술에도 최저가격을?

영국 젊은이들의 지나친 음주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곳곳에 널려있는 스포츠 후원이나 주류 광고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8일 BBC에 따르면 영국의학협회(BMA)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술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술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음주 판촉에 광고비 2억 파운드(한화 약 4천억원)를 포함해 연간 8억 파운드(한화 약 1조6천억원)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술이 신체 장애를 촉진하고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분의 1은 권장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술 소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술과 연관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공공 의료비가 연간 30억 파운드로 집계되고 있다.

술의 직접 광고도 문제지만 영국에서 주류 업체들의 스포츠 후원을 통한 간접 광고는 금융부문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고 인기있는 스포츠인 축구의 경우 잉글랜드 프로 클럽이 총

출동해 우열을 가리는 리그컵을 칼링이라는 맥주회사가 후원해 아예 대회 명칭이 ‘칼링컵’으로 돼 있다. 칼링사는 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팀인 셀틱과 레인저스의 셔츠에도 광고를 내고 있다. 맥주회사인 존 스미스는 리버풀에서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장애물 경마대회인 그랜드 내셔널 등 주로 경마대회를 후원하고 있고, 조니워커 위스키는 영국의 인기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물러원을 후원하고 있다. 협회는 이밖에 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술에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1병 가격에 2병’이나 ‘주류 할인 시간제’ 같은 판촉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를 낸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텔링대학의 제라드 해스팅스 교수는 “TV와 잡지, 뮤직 페스티벌, 축구 대회 등 어딜 가든지 간에 술 광고의 홍수 속에 묻히게 된다”며 “이는 알코올을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9년 9월 8일



생각해보기

- 술에 최저가격제도를 시행한다면 술 가격은 현재보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 이 정책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 분양가상한제는 뭐고 왜 폐지하려고 하나요?

분양가는 건설회사가 새 아파트를 지어 사람들에게 팔 때 제시하는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일정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받지 말라’고 정해 놓은 일종의 ‘최고가가격제’입니다.

분양가의 상한선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의 가격에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시행사의 수익 등을 더해 정해집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했는데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같은 해 9월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토지인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물량에 비해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고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 도입한 것이지요. 취지만 놓고 보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제 와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건 왜일까요.

우선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최고가격제도의 그림인 본문의 〈그림 15-1〉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분양 프리미엄(웃돈)과 암시장이 생겨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주택을 좀 더 비싼 값에 사들일 의사를 가지고 있고 주택 최초 분양자는 이를 일정한 웃돈을 받고 팔 유인(incentive)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몇 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이라는 보완장치가 있어도 분양주택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실제 소유자와 문서상 소유자가 다른 이중등기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전매제한에 걸린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의 품질 하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시장에 초과수요가 형성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품질을 낮추려고 합니다. 생산비용을 아끼기 위해 품질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이 일정 기간 거주해 보지 않고서는 그 품질의 좋고 나쁨을 면밀히 파악하기 힘든 재화는 공급자에게 품질을 낮추고자 하는 유혹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감추어진 특성에 의한 정보의 비(非)대칭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1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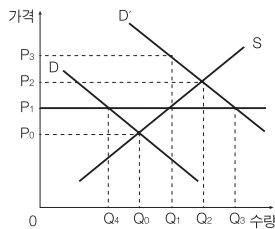
출처 : 동아일보, 2009년 2월 25일, 기사 일부 수정

실력테스트

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재의 수요 곡선은 D, 공급 곡선은 S이다. 정부는 ㉠최저 가격을  $P_1$ 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A재의 ㉡수요곡선이 D'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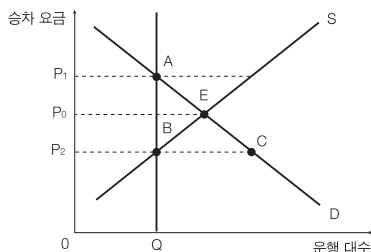


- ① ㉠의 결과 A재의 가격은  $P_1$ , 거래량은  $Q_1$ 이다.
- ② ㉠의 결과  $Q_0Q_1$ 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③ ㉡의 결과 암시장에서의 최대 지불 가격은  $P_3$ 이 될 것이다.
- ④ ㉡의 결과 A재의 가격은  $P_2$ , 거래량은  $Q_2$ 가 될 것이다.
- ⑤ ㉡의 결과  $Q_1Q_3$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2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OO시는 시내 버스 운행 대수를 Q로 고정시켰다. S는 규제가 없을 때의 시내 버스 서비스 공급 곡선, D는 수요 곡선이다. 시내 버스 서비스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운행 대수로 표현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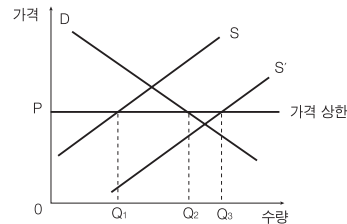
- ㄱ.  $P_2$ 에서 초과 수요 BC가 존재한다.
- ㄴ. Q에서 초과 공급 AB가 존재한다.
- ㄷ. Q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하려는 요금은  $P_1$ 이다.
- ㄹ. Q에서 공급자가 최대로 받으려 하는 요금은  $P_2$ 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림은 가격 상한이 적용되고 있는 밀가루 시장이다. S와 S'는 각각 밀의 가격이 하락되기 전과 하락한 후의 밀가루 공급 곡선이고, D는 밀가루 수요 곡선이다.



- ① 가격 상한의 예로 최저 임금제가 있다.
- ② 밀 가격 하락 후, 밀가루의 임시장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③ 밀 가격 하락 후, 밀가루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Q_3$ 이다.
- ④ 밀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밀가루는 가격 P에서 거래된다.
- ⑤ 밀 가격 하락 전, 밀가루의 초과 수요가  $Q_1 \sim Q_2$  만큼 존재한다.

4 (가) ~ (다)로 인해 A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 소득 증가로 수요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증가하였다.  
 (나) 기술 진보로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증가하였다.  
 (다)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감소하였다.

- ① (가)의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② (나)의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③ (다)의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④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 ⑤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5 밑줄 친 ‘최저임금제’가 A국의 미숙련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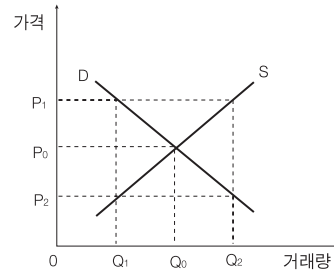
현재 A국은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정책 전문가인 갑에게 도입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갑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미숙련 노동자의 전체 임금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보 기〉

- ㄱ.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실업은 더 증가한다.
- ㄴ. 갑은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 비탄력적일 경우 찬성한다.
- ㄷ. 갑은 노동 공급이 임금에 대해 탄력적일 경우 찬성한다.
- ㄹ.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정부의 규제 가격  $P_1$ ,  $P_2$ 가 개별 시장에서 각각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①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는  $P_1$ 에 해당한다.
- ② 노동시장에서  $P_1$ 은  $Q_0 \sim Q_2$ 만큼 실업을 발생시킨다.
- ③ 상품시장에서  $P_1$ 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사회적 후생은  $P_1$ 에서는 증가하지만,  $P_2$ 에서는 감소한다.
- ⑤  $P_2$ 로 규제할 경우에  $P_1$ 까지 지불하려는 수요자가 존재한다.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④ 5. ① 6. ⑤

개념 16

탄력성

**키워드** 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총지출 · 총수입 · 필수재 · 대체재

개념설명

 탄력성의 필요성과 의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는다. 어떤 재화의 경우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할 수도 있고 거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수요량의 민감도를 측정해보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되고 공급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 된다. 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수량의 변동률을 가격변동율로 나눈 값이다.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동률}(\%)}{\text{가격변동률}(\%)} = \frac{\frac{\text{변화 후 수량} - \text{변화 전 수량}}{\text{변화 전 수량}}}{\frac{\text{변화 후 가격} - \text{변화 전 가격}}{\text{변화 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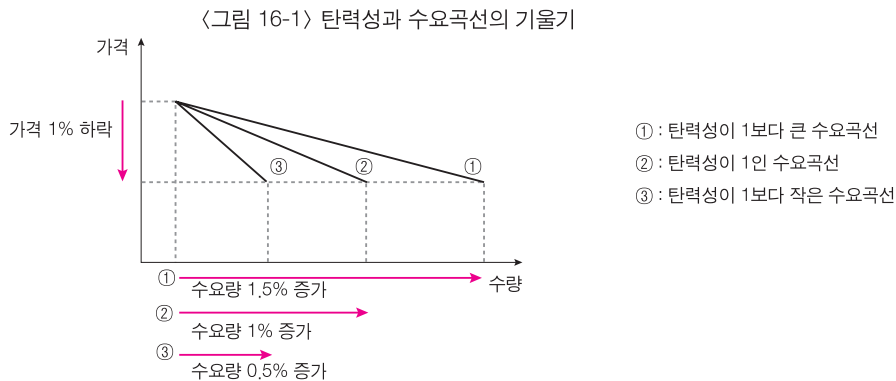
$$\text{공급의 가격탄력성} = \frac{\text{공급량의 변동률}(\%)}{\text{가격변동률}(\%)} = \frac{\frac{\text{변화 후 수량} - \text{변화 전 수량}}{\text{변화 전 수량}}}{\frac{\text{변화 후 가격} - \text{변화 전 가격}}{\text{변화 전 가격}}}$$

※ 계산된 탄력성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절댓값을 취해 양수로 만들.

이처럼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수요량의 변동률을 계산해보면 음수가 된다. 수요법칙에 따라 탄력성의 분자와 분모의 값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절대값을 취해 양수로 나타내는데,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부호보다 그 크기가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만약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은 1%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은 1%이하로 조금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인 경우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진다.



### 탄력성과 총지출의 관계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 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총지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총지출이 증가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총지출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총지출이 감소한다. 수요가 단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해도 총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총지출은 수요량과 가격의 곱으로 나타나는 데,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요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나타나는 총지출은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1%보다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총지출은 감소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경우도 이와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6-1>과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 총

지출은 생산자 입장에서 **총수입**이 된다. 수요자와 생산자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된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수요량이 기업에게 곧 판매량이 되기 때문이다.

〈표 16-1〉 탄력성과 총지출의 관계

탄력성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	총지출 변화
탄력성 > 1	1% 상승	1% 이상 감소	감소
	1% 하락	1% 이상 증가	증가
탄력성 = 1	1% 상승	1% 감소	불변
	1% 하락	1% 증가	
탄력성 < 1	1% 상승	1% 이하 감소	증가
	1% 하락	1% 이상 증가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는 비탄력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치재는 탄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유의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휘발유 없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휘발유 없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은 ‘필수재는 다른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말과도 통한다.

즉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체재를 찾기 용이하다면 수요는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휘발유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소비자가 대체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수요 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쇠고기나 닭고기로 소비패턴을 쉽게 바꿀 수 있어 돼지고기의 수요는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것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장기)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소비자가 적당한 대체재를 찾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해도 단기에 더 저렴한 LPG 차량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휘발유 이용 차량은 감소하고 휘발유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또는 업계의 기술개발로 고효율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신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생산되어 휘발유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수요자는 가격이 변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은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부터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간 생산량 변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과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도 단기간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올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려 해도 이미 경작지와 수확량은 정해져있다. 이처럼 주택이나 농산물은 생산량을 단기간에 쉽게 조절하기 어려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근로자 추가 채용,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비해 단기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한편,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간에 장기에는 시설변화·신규기업의 진입과 퇴출 등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공급 탄력성이 단기에 비해 더 크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 탄력성의 다른 사례는?

### 1. 수요의 소득탄력성

탄력성은 가격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도 적용된다. 먼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소득을 예로 들어보자.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부른다.

$$\text{수요의 소득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소득 변화율(\%)}}$$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20% 늘어났다면 소득탄력성은 2가 된다. 반면 소득이 10% 늘어나고, 수요(량)이 20% 줄어들었다면 소득 탄력성은 (-)2가 된다. 이것은 열등재의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의 부호로부터 재화가 열등재인가, 아니면 정상재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정상재와 열등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념 12] 참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음수로 계산되지만 절댓값을 붙여서 양수로 나타냈다. 그러나 소득탄력성은 절댓값을 붙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2. 수요의 교차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도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부른다.

$$\text{Y재 수요의 교차탄력성} = \frac{\text{Y재 수요(량)의 변화율(\%)}}{\text{X재 가격 변화율(\%)}}$$

X재화 가격이 10% 올라, Y재화 수요(량)이 20% 증가했다면 Y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2가 된다.

이것은 두 재화가 대체관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X재 가격이 오르면 X재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던 Y재 수요(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X재화 가격이 10% 올라, Y재화 수요(량)이 20% 감소했다면 Y재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2가 된다. 이것은 두 재화가 보완관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X재 가격이 올라, Y재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완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대체와 보완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념 12] 참고). 따라서 교차탄력성의 부호는 두 재화의 대체와 보완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배추 값이 올라도 농민들의 이익이 많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 농민들은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배추를 밭떼기로 넘기는 계약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밭떼기'는 포전거래라고도 하는데,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하는 농산물재배를 뜻한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프레시안 2010년 10월 10일

올해 한반도에 지루하게 이어진 가을장마도 한국 경제에 단단히 영향을 미쳤다. 주말이면 비가 오는 탓에 국내 관광업계와 서비스 업종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무엇보다 가을장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배추 값의 상승이다.

농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야채는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품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야채의 공급은 작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향이 크다. 생산량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비해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산을 결정하고도 실제로 생산이 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한 공급 조절도 쉽지가 않다. 쌀이나 과일은 보관 기간이라도 길어 출하 시점을 조정할 수 있지만, 야채의 경우는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다. 여기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이 쉽게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식습관은 문화 및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탓에 가격에 의한 수요 조절도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은 농산물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여 농민들과 소비자의 시름을 더하게 한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농민들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현재 가격이 올라간 배추를 보고 농민들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경제적 선택을 하고 파종을 해

도, 실제로 배추가 생산되어 출하되는 몇 달 뒤의 가격은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배추 유통 구조가 일명 ‘밭떼기’ 거래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배추를 중간 유통 상인에게 평당 예측되는 생산량에 예년의 배추 값을 계산해 지불하고 넘기는 것이다. 실제 농촌에서는 배추밭의 면적으로 가격을 지불하지만, 가격을 계산하는 구조는 배추의 생산량에 근거를 두게 된다.

밭떼기 거래를 하는 농민과 중간상인은 무슨 비용과 편익을 주고받을까? 농민들은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버리고 예측가능하며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된다. 물론 배추 농사가 잘 되고 가격도 올랐을 경우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놓치지만, 이것은 반대의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가져간 중간상인이 가져가는 것이 밭떼기 거래의 본질이다. 한쪽은 위험을 팔고 다른 한 쪽은 위험을 사는 것이다.

실물 경제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해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를 선도거래라 한다. 선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석유, 농산물, 주식, 외환 등 다양하다. 밭떼기도 일종의 선도거래의 개념이다. 중간 상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현재의 확실한 수입으로 할인하는 것이다.

배추 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밭떼기를 하는 중간 상인들의 폭리를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중간 상인의 이득을 폭리로 낙인을 찍기는 무리가 있다. 밭떼기와 같은 선도거래는 단순히 물건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물건을 따라 미래의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교환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1월호

## 영화계 불황 탈출구는?

영화 관람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영화인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 영화 관람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소비자의 경우 소득에서 극장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중략) “관람료를 올릴 때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연합뉴스 2008년 12월 3일

영화인들이 영화계 불황을 타개하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관람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빡빡한 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위해 찾게 되는 곳이 극장임을 생각

할 때 영화관람료 인상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관람료 인상을 지지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사 속 보고서는 관람료를 올려 영화산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람료 인상은 관람객 이탈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극장 수입이 줄어들 것이냐는 또 다른 사안이다. 극장 수입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은 이탈한 관람객 규모이다. 관람객 이탈이 크지 않아 상승된 가격이 이를 벌충할 수만 있다면 극장 수입은 줄어들지 않는다.

보고서는 관람객 이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가계소득에서 영화관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영화 관람료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를 경우 가격 인상률만 놓고 보면 약 30%에 이르러 학원 수강료 등 교육비 상승률에 비해 훨씬 크지만, 긴축살림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가계지출 비중이 큰 항목인 것이다. 따라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더라도 관람객 이탈은 그리 크지 않아 가격 인상분이 이를 벌충하고도 남아 극장 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논리이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우선해서 지출을 줄이는 항목이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관람료 인상은 상당 규모의 관람객 이탈을 가져올 거라는 것이다. 또 영화의 대체재가 많아진 만큼 가격 인상으로 인한 관람객 이탈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카드·통신사 제휴할인이 없어지면서 현재의 관람료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가격 인상시 불법 다운로드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영화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네티즌들의 의견대로 탄력성이 크다면 가격을 올렸을 때 관람객 이탈이 커 극장 수입은 감소할 테지만, 보고서의 주장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가격을 올림으로써 극장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 혹은 탄력성이 작은 계층과 큰 계층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도 있다. 그 근거는 영화 관람료 가격차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화라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탄력성이 큰 10~20대들에게는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탄력성이 작은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극장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관람료 상승시 10~20대들의 이탈에 따른 손실을 여전히 남아있을 관람객으로부터 오는 추가수익이 상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극장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1월호





실력테스트

1 다음 자료의 자동차용 연료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사는 갑국의 유일한 자동차용 연료 판매 회사이다. 자동차용 연료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1/3에 해당하는 집단인 G1은 가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량의 연료를 구입하는 반면,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집단인 G2는 가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료를 구입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두 집단의 구입패턴은 변하지 않았으나, G1의 월 평균 구입량은 20% 감소했고 G2 월 평균 구입액은 10% 감소했다.

- ① G1의 수요가 G2의 수요보다 가격에 대해 더 탄력적이다.
- ② 연료는 G1에게는 열등재, G2에게는 정상재이다.
- ③ 경기 침체 이전 시기에는 A사의 연료 가격 인상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 ④ 경기 침체 이후 시기에는 A사의 연료 가격 인상이 판매 수입을 감소시킨다.
- ⑤ 경기 침체로 인하여 G2보다 G1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2 다음 자료에서 증권사 A, B의 LCD TV 시장 전망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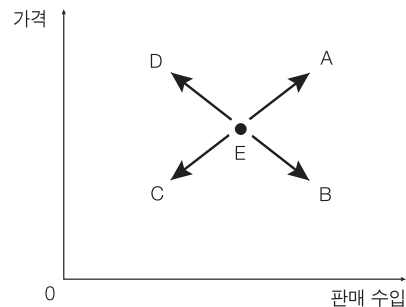
LCD TV의 주요 부품인 LCD 패널 가격이 10%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CD TV 시장에 대한 증권사 A와 B의 전망이 서로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LCD TV 시장에서 A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B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보기>

- ㄱ. A가 B보다 가격이 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ㄴ. B가 A보다 거래량이 더 작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ㄷ. A와 B 모두 균형 가격은 오르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ㄹ. A는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B는 판매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은 어떤 재화의 가격과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E에서 A~D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기>

- ㄱ.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방향으로 이동한다.
- ㄴ. 생산 기술이 진보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B 방향으로 이동한다.
- ㄷ.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C 방향으로 이동한다.
- ㄹ.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D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표는 어느 회사의 ○○제품에 대한 국내 지역별 시장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사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조사 결과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모두 같고 ○○제품의 두 지역 간 이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조사 내용 \ 지역	A지역	B지역
현재 판매량	100개	100개
현재가격	2만 원	2만 원
사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낮다	높다
대체재의 수	적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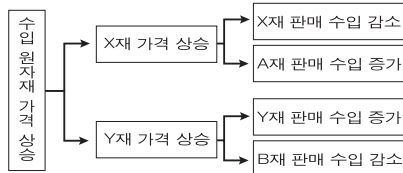
〈보 기〉

- 갑 :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인하는 A지역보다 B지역의 매출액을 더 감소시킬 것입니다.
- 을 : 두 지역에서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판매량의 증가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클 것입니다.
- 병 : 두 지역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A지역의 가격을 B지역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정 : 광고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는 A지역의 매출액을 감소시키지만 B지역의 매출액은 증가시킬 것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5 아래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각 재화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림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X, Y재와, 관련 재화인 A, B재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단, 각 재화는 모두 최종재이며 X, Y재는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지만 A, B재는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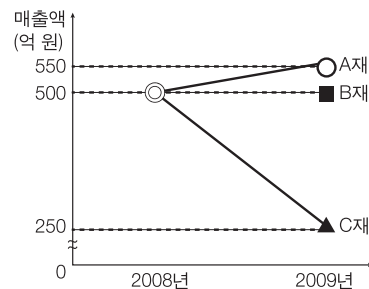


- ① X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 ② Y재에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③ A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④ A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⑤ B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6 위 자료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 재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① X재는 공급이 증가하여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다.
- ② Y재는 수요가 증가하여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 ③ A재는 공급이 증가하여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 ④ B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 ⑤ B재는 공급이 감소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7 A~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전년 대비 2009년의 가격 상승률은 A~C재 모두 10%였다.)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A재	B재	C재
①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②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탄력적
③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탄력적
④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⑤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8 X재의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고 Y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때, (가)와 (나)의 상황이 가져올 총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옳은 것은? [3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 X재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나) Y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되던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었다.

- ① X재의 총판매 수입 증가, Y재의 총판매 수입 감소
- ② X재의 총판매 수입 증가, Y재의 총판매 수입 증가
- ③ X재의 총판매 수입 감소, Y재의 총판매 수입 증가
- ④ X재의 총판매 수입 감소, Y재의 총판매 수입 감소
- ⑤ X재의 총판매 수입 불변, Y재의 총판매 수입 불변

9 (가)~(라) 시장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 수요자들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수요하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나) 공급자들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공급하며,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다) 공급자들은 주어진 일정한 가격에서 얼마든지 공급하려고 하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 수요자들은 주어진 일정한 가격에서 얼마든지 수요하려고 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보 기>

- ㄱ. (가)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ㄴ. (나)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ㄷ. (다)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ㄹ. (라)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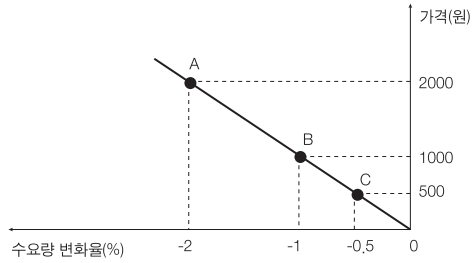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다)에 해당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 갑은 매달 A 재화를 5만 원어치 구입한다.  
(나) 을은 매달 4kg의 A 재화를 구입한다.  
(다) 병은 매달 생활비의 1/10을 A 재화 구입에 사용한다.

(가)	(나)	(다)
① 완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완전탄력적
② 단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③ 완전비탄력적	완전탄력적	단위탄력적
④ 단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단위탄력적
⑤ 완전비탄력적	단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11 그림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상승할 때,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① 이 재화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 ②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③ A와 B 사이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④ B와 C 사이에서는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⑤ C에서 이 재화는 열등재의 특성을 나타낸다.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③ 5. ① 6. ④ 7. ⑤  
8. ② 9. ② 10. ④ 11. ④

# 3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 개념 17

### 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키워드** 시장실패 · 독과점시장 · 진입장벽 · 경제적 손손실 · 공정거래위원회

#### 개념설명

#### 시장실패의 의미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경제생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까다롭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성립하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증명해냈다.

그러나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때 적게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어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시장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실패란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실패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점이나 독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독과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뚫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즉, 시장에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설정에 있어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이 독과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이점들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생산과 소비의 편익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버려진 몫이다. 과소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해 사회가 잃어버린 편익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손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 독과점시장에 의한 시장실패 해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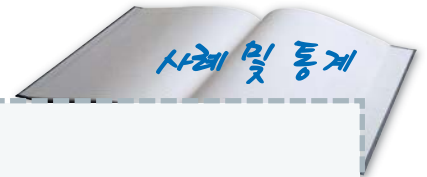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가격은 높고 생산은 줄어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생산량을 줄여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업의 지나친 과대광고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간 내부 거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소수 기업 간의 담합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를 기관으로 1981년 5월에 발족하였으며,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 활동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 ②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③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의 규제
- ④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규제
- ⑤ 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 제한
-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 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 불가피한 독점과 바람직한 독점

독점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불가피하게 독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독점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자연독점은 시장 전체의 수요를 여러 생산자가 생산할 때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생산할 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장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생산규모를 크게 할수록 전체적인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에 형성되는 것이다.

자연독점의 예로 전력산업을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기업이 전력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발전소 및 배전·송전망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여러 기업이 난립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중복해서 지출된다. 한편, 하나의 기업이 전력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비용의 중복 지출을 막고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진다. 생산규모를 키울수록 단위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시장은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하여 다른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특허 제도는 독점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신기술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다른 기업이 신기술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허락을 얻고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주며,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출처 : 두산, 경제 교과서

### 시장경쟁과 독과점

비누를 생산하는 철이네의 개당 생산원가는 80원이다. 비누의 가격이 120원 이하이면 영이네는 살 생각이 있고 80원 이상이면 철이네는 만들어 팔 생각이 있을 때, 영이네와 철이네가 만나면 거래 흥정이 벌어질 것이고, 양측은 비누 가격을 80원 이상 120원 이하의 어느 수준으로 합의할 것이다. 시장교환은 매매쌍방에게 모두 이익을 주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개별 거래이익의 크기는 거래가격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컨대 양측이 비누 가격을 90원으로 합의하였다면 영이네의 거래이익은 30원( $=120-90$ )이고 철이네의 거래이익은 10원( $=90-80$ )이다. 흥정과정에서 사려고 하는 영이네가 협상을 더 잘하면 가격이 80원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고, 반대로 팔려고 하는 철이네가 더 잘하면 120원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결국 쌍방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제 순이네도 비누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자. 그러면 철이네는 판매 기회가 영이네밖에 없는데 비하여 영이네는 철이네 말고도 순이네에게서도 살 수 있다. 영이네는 철이네가 불만스러울 때 철이네를 버리고 순이네에게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협상력을 누린다. 영이네에게 순이네는 철이네를 대체할 수 있는 외부기회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쌍방 가운데 더 많은 대체성 거래기회를 가진 쪽이 더 큰 협상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철이네와 순이네에게 영이네가 유일한 고객이라면 철이네와 순이네는 서로 영이네와 거래하기 위하여 경쟁해야 한다. 하나뿐인 거래기회 영이를 놓고 다투는 철이네와 순이네의 관계는 경쟁관계이다. 이에 비하여 매매쌍방인 영이네와 철이네, 또는 영이네와 순이네 사이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상·협력관계이다. 비록 유리한 가격을 얻어내기 위하여 협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를 통하여 서로 이익을 누린다.

영이네는 철이네와 순이네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하여 거래함으로써 이 경쟁의 승자를 결정한다. 순이네의 생산단가가 90원이면 철이네가 85원을 제시할 때 순



이네는 감당하지 못한다. 경쟁의 승자는 철이네로 결정되지만, 순이네가 존재하는 한 철이네는 90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할 수 없다. 외부기회인 순이네가 철이네와 경쟁함으로써 영이네의 협상력을 그만큼 강화시킨 것이다.

영이네의 협상력은 대체성 거래기회 상대방인 철이네와 순이네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강해진다. 만약 영이네가 순이네와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쟁이 사라지므로 영이네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철이네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가령 철이네가 획기적 혁신에 성공하여 순이네보다 훨씬 우수하고 값싼 비누를 개발한다면 순이네는 더 이상 영이네와 거래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반드시 필요한 비누원료를 공급하는 돌이네가 철이네의 동생이면 형제가 짜고 순이네에 대한 원료 공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도 영이네와 순이네 사이의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철이네와 순이네가 담합하여 공동으로 영이네에게 대처하는 경우에도 경쟁이 사라지고 영이네의 거래기회도 줄기 때문에 그 협상력도 약화한다.

거래는 자유의사로 일어나는 만큼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래가격을 외부인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흥정과정을 좌우하는 협상력이 부당하다면 문제가 다르다. 부당한 협상력으로 자신의 거래이익을 키우는 행위는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즉 부당한 협상력이 작용한 쌍방 합의와 그 가격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보통 각각 여러 사람들과 사고 파는 거래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내 거래기회의 상대방들 간 경쟁은 나의 협상력을 강화시킨다. 시장거래과정의 협상력을 특히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이라고 한다. 가격은 파는 쪽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면 높게, 반대로 사는 쪽이 강하면 낮게 결정되는데, 시장 지배력에도 정당한 시장 지배력과 부당한 시장 지배력이 있다.

시장 지배력은 결국 자신의 거래기회는 늘리면서 거래 상대방의 다른 거래기회를 줄이면 강화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부단히 내 경쟁자보다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고객들이 내 경쟁자들을 외면하고 나하고만 거래하려 하면 나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 독점(monopoly) 은 이러한 시장 지배력의 완결본이고 몇 개의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분점하는 과점(oligopoly) 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만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과점의 경우 공급자들이 합병을 통하여 독점기업을 만들거나, 합병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서로 간 경쟁을 회피하는 카르텔(cartel) 을 결성하면, 구매자들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키면서 독점이나 독점과 같은 시장 지배력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경쟁사업자에게 필수 원료의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내가 독점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조건으로 내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공정경쟁은 매매쌍방이 서로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말한다. 필수

원료 공급거절이나 내 제품 구매강요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원천 봉쇄함으로써 고객과 경쟁사업자 사이의 거래기회를 차단하므로 공정경쟁을 훼손한다. 합병을 통한 독점화, 담합,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진입장벽 설치의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부당하게 줄이면서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쟁제한·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11월호

### “구글이 검색 독점” EU업체 불만 팽배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인 구글이 웹관련 사업을 확대하면서 독과점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반독점국이 구글의 사업 운용 행태가 ‘웹 중립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계속 따져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무역위원회(FTC)도 최근 네트워크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듯,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온라인 검색 엔진업체에도 웹 중립성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글이 일부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인 파운덤, 프랑스의 법률 검색 사이트인 에취스티스 등이 구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곳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순위를 조작,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문제와 관련,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파운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게리 리백 변호사는 “구글 검색엔진 알고리즘이 부당하게 일부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반독점 문제가 불거지자 연방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니 친 연방판사는 구글과 미 작가협회·발행자협회 간 수정 협상 타결이 구글에 수백만권에 달하는 도서관 책에 대한 지나친 통제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독과점 위반 여부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독과점 시비와 각종 규제를 피해온 구글은 비상이 걸렸다. 정책 전문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적어도 4개의 홍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구글은 지난해 로비자금으로 40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2007년에 비해 160%가 증가한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0년 5월 25일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장에서 [가]는(은) 대부분의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 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나]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인 [다]는(은)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라]는(은) 어떤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대가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 보 기 > —

- ㄱ.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는 가격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 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가격 폭등은 (나)의 예이다.
- ㄷ. (다)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 ㄹ. 정부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라)의 문제를 해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②

## 개념 18

## 외부성과 시장실패

**키워드** 외부성 · 긍정적 외부성 · 부정적 외부성 · 과다 생산 · 과소 생산 · 사회적 비용 · 사회적 편익

## 개념설명

### 외부성과 시장실패

외부성도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외부성**(externality)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가격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부정적 외부성**(외부불경제, 음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며,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 양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을, 후자의 경우 피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경우 모두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에 외부성으로 볼 수 있다.

### 부정적 외부성과 과다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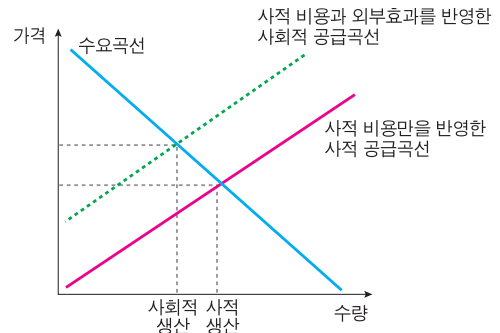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면 화학공장 사장은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이유가 없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생산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생산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자신의 피해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량을 줄여서 피해를 줄일 것이다. 혹은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데, 이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전보다 생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생산

자가 부정적 외부성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즉,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생산은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으로 나누어 다시 설명해보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 환경오염(부정적 외부성)의 피해는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의 사적비용 +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이 된다. 만약 생산자가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성 있는 경우 **과다생산**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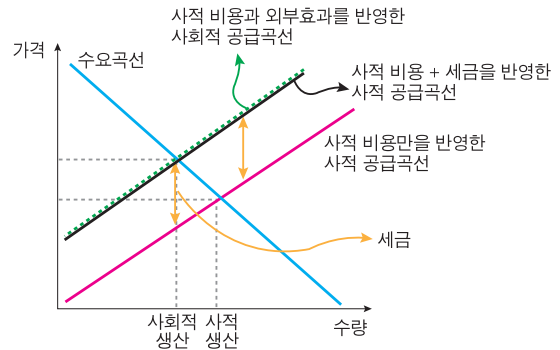
〈그림 18-1〉 부정적 외부효과



### 과다생산의 해결

과다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성 대해 세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기업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최적 오염물질배출수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나, 각 기업에게 오염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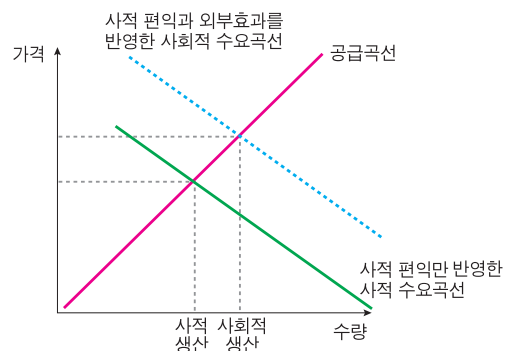
〈18-2〉 부정적 외부효과와 해결



### 긍정적 외부성과 과소생산

자녀의 밤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가 대문에 2개의 외등을 설치했다. 외등의 설치로 집 앞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외등의 편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심히 “어, 밝으니까 좋은데?”하며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밝아도 좋은데, 주위에 몇 개만 더 설치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례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과소공

〈그림 18-3〉 긍정적 외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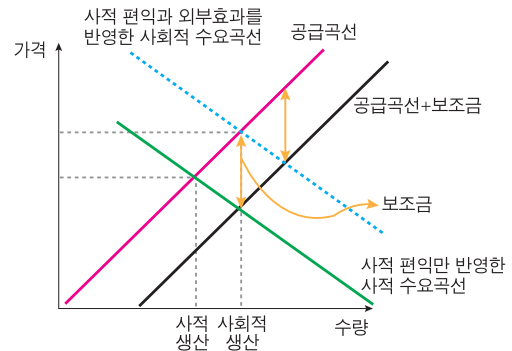


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가 외등을 설치할 때는 자녀의 편익만을 고려해서 2개를 설치했지만, 외등 설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면 더 많은, 더 밝은 6개의 외등을 설치했을 것이다. 사회적 수요곡선은 사적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그림 18-3>와 같이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 과소생산의 해결

과소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최적 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긍정적 외부성 대해 보조금이나 세금보조와 같은 형태의 비용부담을 해준다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18-4> 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 탄소세

탄소세(carbon tax)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세 또는 과징금이다. 최근 탄소세의 도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억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세라고 칭해야 하나 탄소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례 관계에 있는 탄소연소량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탄소세 부과 경제적 근거는 부정적 외부성의 교정에 있다. 부정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회 최적 생산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데 이를 세금을 통해 사회 최적 수준으로 돌려놓는다. 교과서마다 환경오염 문제를 부정적 외부성의

전형으로 들고 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경제학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피구(Arthur Cecil Pigou)의 저서인 『후생경제학』(1920)이 효시다. 피구는 부정적 외부성을 치유하기 위해 교정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이를 피구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탄소세도 피구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탄소세는 유종별로 34~96원(kg당)이며, 연간 8조5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탄소세의 도입은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하고 조달된 세수를 다시 시장의 치유나 왜곡된 조세 체계의 개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10년 2월호

### 부정적 외부효과와 최저가격제도

영국에서 국민의 과도한 음주를 자제시키기 위해 술값에 최저가격을 명시하자는 ‘제2의 금주법’ 제안이 나왔다. 영국 정부의 최고위급 의학자문위원인 리엄 도널드슨은 정부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홍청망청 술을 마시는 영국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 최저가격을 정해야 한다” -중략- 영국 건강보험(NHS)에 따르면, 영국에서 알코올성 질환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0억파운드, 알코올 남용과 관련해 쏟아붓는 세금은 250억 파운드에 이르러...

자료 : 『한겨레신문』, 2009년 3월 16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사촌이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가 난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사촌의 경제 행위로 인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속담은 지극히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제3자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그것이다. 위 기사 또한 타인의 행위가 내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에 한 사례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술 가격이 하락하여 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불경기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지만, 기사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술 소비 증가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 다시 말해 외부효과가 발생하자 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편익을 가

저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기사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술 소비 증가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음주운전 증가, 타인에게 불쾌감 유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자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타인이나 국가가 그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시장실패의 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기사처럼 시장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즉 시장실패 시 정부는 직접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만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중 제품에 대해 최저가격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저가격선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될 것이므로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 최적 수준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월간 「click 경제교육」, 2009년 5월호

### 코즈 박사의 노벨상 수상(1991)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널드 코즈 박사는 이른바 「외부불경제」라는 현대경제학의 새로운 사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한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 효과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코즈박사는 이 외부불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학설을 체계화시켰다.

코즈 박사는 지난 60년 ‘사회적 비용의 문제’ (The Problem of Social Cost)라는 유명한 논문을 통해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코즈이론’을 제기함으로써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 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성이란 어떠한 거래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잔디 깎는 기계의 가격에는 기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의 희생(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성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 및 편익과 사적 비용 및 편익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외부성의 존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시장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부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관념이었으나 코즈 박사는 정부



의 개입 없이도 외부성과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 기존의 관념을 뒤엎었다. '코즈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매매할수 있다면 그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는 것.

코즈 박사는 이와 관련, 기관차가 불티를 방출함으로써 선로주변 농장에 화재를 야기하는 경우의 철도회사와 농장주를 예로 들고 있다. 만약 농장주에게 불티방출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 경우 불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농장주에게 귀속되는 편익보다 불티를 자유롭게 방출함으로써 철도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더 크다면 철도회사는 농장주로부터 이 권리를 구입하게 된다는 것. 이에 반해 철도회사에게 불티를 방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로부터 얻는 철도회사의 편익이 농장주의 편익보다 더 크다면 철도회사는 이 권리를 팔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어떠한 경우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코즈이론'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1991년 10월 15일 기사 일부 수정

실력테스트

1 다음 X재의 시장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OO제약회사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전염병의 백신인 X재를 최초로 개발하여 ㉠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다른 제약 회사들에게 X재의 생산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① X재의 집중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② ㉠으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은 경합성을 가지게 된다.
- ③ ㉠으로 인해 X재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 ④ ㉡으로 인해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⑤ ㉡의 상황에서 X재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2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늘날 지식이 점차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 배제성과 ㉢ 경합성이 결합된 ㉣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지식의 특성 때문에 ㉤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자연 과학의 발달은 ㉠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사례이다.
- ② 제약 회사에서 개발한 항암 치료제는 ㉡이 있다.
- ③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의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것이다.

3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가) 비흡연자 A는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불쾌감을 느낀다.
- (나) B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다) 제품 C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으로 호수의 물고기들이 폐사하였다.

<보 기>

- ㄱ. (가)에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 ㄴ. (나)에서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ㄷ. (다)에서 제품 C의 시장 균형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 ㄹ. (가), (다)에서 담배와 제품 C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자료에서 나타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독감 백신과 교육 서비스는 수요자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사회 전체의 편익이 더 크다. 이 상품들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